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장학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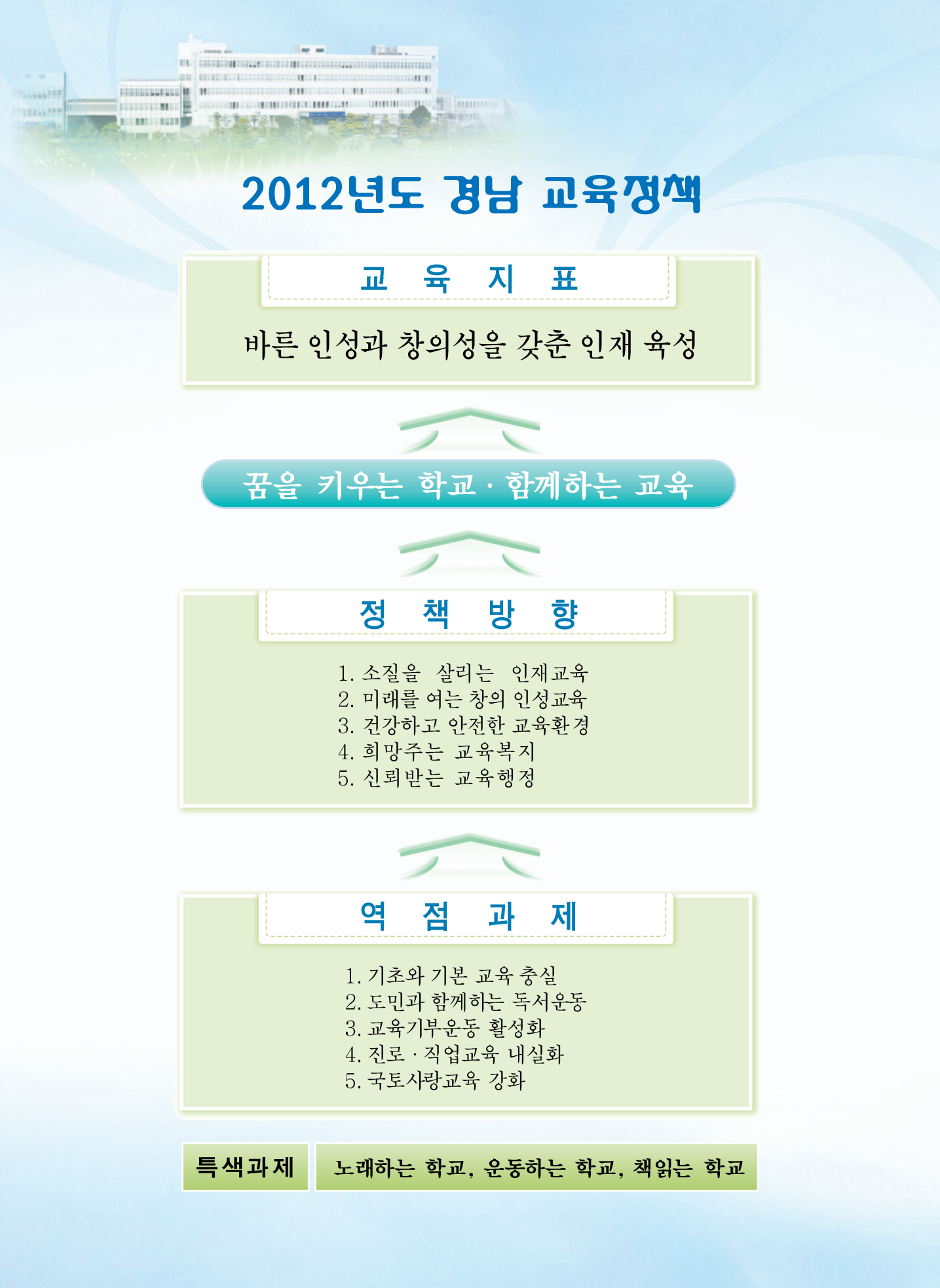
2012
제231호(통권450호)

5

■ 장학특집 / 진로교육

■ 교육정보 / 이달의 교육기부





2012년도 경남 교육정책

교육 지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

꿈을 키우는 학교 · 함께하는 교육

정책 방향

1. 소질을 살리는 인재교육
2. 미래를 여는 창의 인성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4. 희망주는 교육복지
5. 신뢰받는 교육행정

역점 과제

1. 기초와 기본 교육 충실
2.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
3. 교육기부운동 활성화
4. 진로 · 직업교육 내실화
5. 국토사랑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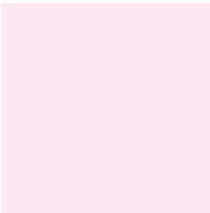
특색과제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2012. 5 제231호(통권450호)



02 권두언 04 교육감 동정 05 장학현장 06 교육 칼럼 08 특집 / 진로 교육

- 신록보다 더 푸른 청소년, 그들을 위하여 / 고영진
- 가슴 속에 담아두고 싶은 몇 가지 / 김명훈
- 알기 쉬운 진로교육 정책 / 박성수
- 2012. 경남 진로교육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 이춘자
- 학생의 진로를 밝히는 커리어코치 활동 / 이재원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떠나는 꿈찾기 여행 / 강분순
- 학생들의 꿈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도우며 / 김성자
- 도전 UP 프로그램을 통한 체육 학습 능력 신장 / 변찬진
- 수업 공개를 통한 명품 교사 되기 / 전수근
- 즐거운 책읽기 속에 숨은 보물이야기 / 김병순

24 좋은 수업 다지기

30 교육정보

31 특색교육현장을 찾아서

- 이달의 교육기부
- 대학과 연계한 신나는 토요 스포츠 교실! / 류진숙
- 노래·운동·책 읽는 학교로 3H UP! / 남성호
- 의령 얼 이어가는 '호국의병소년단' / 김대섭
- 'YES프로그램'으로 운동능력 신장 및 바른인성을 함양하는 용산초등학교 / 김해영
- 묵향 속에 피어나는 예절교육 / 선정숙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쑥쑥!! / 노정우
- '내덕뉴스'와 함께 소통 UP! / 이맹우
- 페이스북의 이벤트 기능 / 최재용
- 교 원 - 미네르바를 닮아가며 / 김혜영
- 학부모 - 보물섬 남해의 보물 유치원 / 정주희
- 학 생 - 욕심 없는 삶을 꿈꾸며 / 이재훈
- '소유'를 읽고 / 김해경
- 好梅圖 / 차일수

37 명품학교, 명품교육

52 전문가초대석

55 참여마당

61 향기나는 서가

63 지상갤러리

▶ 표지사진 - 박준일(구산초등학교구서분교장)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6월호 모집 기간 : 2012년 5월 20일까지 • 모집내용 : 이색교육현장, 참여마당(시, 수필, 독후감 등), 교육미담 등 • 분량 : A4 1~4매 내외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초등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http://lms.gnedu.net>>-장학월보커뮤니티

2012년 5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고영진 • 총괄 : 교육과정과장 김영채 • 기획 :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이국식 • 편집주간 : 교육과정과 장학사 박정화
• 편집위원 : 한영자, 박준일, 이왕민, 윤수영, 김민주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비 매 품



신록보다 더 푸른 청소년, 그들을 위하여

푸르름이 아름다운 5월입니다. 어린이날과 함께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는 잠깐이나마 일상 속에서 잊혀진 듯 했던 고마운 분들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한없이 받았던 그 사랑 덕분에 존재하는 이 순간이 더없이 고마운, 그래서 5월은 해를 지날수록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되어갑니다.

신록이 빛을 더해 갑니다. 5월을 '청소년의 달'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알 듯합니다. 하지만 봄을 막 벗어난 새 잎의 연두 빛이 아직은 너무 얇아 때 아닌 센 바람과 강한 비가 두렵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경남도내 학업중도탈락 학생이 연 3천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해 6만 여 명이 발생합니다. 사회 현안으로까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일입니다.

학업중도탈락은 제도권 밖의 교육을 원하는 일부 학부모의 교육철학에 의한 선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는 학교부적응이 빛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상 학업중도탈락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 이들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희망과 의지, 적극적인 동기가 이들의 삶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일찍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6년 전에 발간된 책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에서 저자는, “청소년들은 몸 담고 있는 학교, 가정, 소비공간, 대중 매체 등 여러 영역간의 괴리, 분열, 또는 결탁상태이며, 이 영역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시의 압박이 아니라 이 영역들 사이의 ‘괴리’가 청소년들을 정신 분열증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힘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6년 전의 책이 말하는 내용이 더 깊은 상처로 악화된 오늘 기성세대인 우리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길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내 전 학교에 ‘꿈키움 교실’ 운영을 통해 학업중도탈락학생을 반으로 줄이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도내 3천 명의 학업중도탈락학생 숫자는 1,000개에 이르는 경남의 학교 비율로 볼 때 학교당 해당 학생은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교육현장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께 그들을 끌어 안아달라고 늘 당부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한계 상황에 이르러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건디기 힘든 잠깐의 순간에 우리가 그들을 놓지 않으면 미래는 그들을 기다려 줄 것입니다. 명문대학 합격률 상승보다 학업중도탈락 학생 비율 저하가 우리 모두에게 더 값진 교육의 성과입니다. 찬란한 계절 5월, 신록보다 더 눈부신 학생들의 성장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2. 5.

경상남도교육감





01



02



04



03



05

- 01 청소년 꿈 키우미 발대식 참석
- 02 국제교육도시연합세계총회 참석
- 03 대만 카오슝한국인학교 방문
- 04 산청교육청 업무협의
- 05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결단식 격려
- 06 초·중학생종합체육대회 참석



06



07—



08—



10—



09—



11—

- 07 낙동강학생수련원 -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운영
- 08 경상남도산촌유학교육원 - 다문화 가족캠프 운영(산촌문화의 밤)
- 09 김해도서관 - 도서관 100배 활용하기
- 10 진주교육지원청 - 책 읽어주는 어머니
- 11 함안교육지원청 - 학교주치의 배지덕터 MOU 체결
- 12 하동교육지원청 - 토요스포츠



12—

가슴 속에 담아두고 싶은 몇 가지



김 명 훈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다른 어떤 선생님보다 그 선생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틀림없이 소년원이나 들락거리고 말았을 거예요. 선생님은 유독 저한테 큰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제 안에 들어 있는 무언가를 보신 거지요”

지난해 타계한 IT영웅 스티브 잡스, 잡스는 초등학교 시절 그의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시절 이모진 힐 선생님이었다고 자서전에서 밝혔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위대한 IT혁명이었지만 과묵한 성격 등으로 악명(?)이 높았고 자서전에는 그의 불같은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진 힐 선생님을 ‘내 인생의 성자 중 한 분’이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역할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5월입니다. 언제부턴가 ‘선생은 있어도 스승은 없다’라는 말이 사도의 길을 걷는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로서 스승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가슴에 품고 담고 싶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하였으면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킬 때 머리를 가리키지 않고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킵니다.

왜일까요? 가슴이 머리보다 훨씬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원하는 것보다 머리가 선택하는대로 갑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자신의 장래를 택할 때 머리로 택한 경우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가슴으로 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는 손익을 따지고 계산적이지만 가슴은 하고 싶으면 그냥 합니다. 머리로 다가서면 긴장하지만 가슴으로 다가서면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가슴으로 다가서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가슴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선생님들은 가슴으로 마음을 열고 학생들을 가르치셨으면 합니다. 꿈꿈이 새겨볼 내용입니다.

◇ 예방주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역경, 좌절은 자신이 성장하는 데 예방주사 역할을 합니다. 한 번도 일등을 놓치지 않은 아이는 한 번 실패했을 때 좌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피겨선수 김연아, 야구선수 박찬호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박찬호 선수는 “많은 선생님과 코치, 감독님들로부터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배웠지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지 못해 힘들 당시 극한 선택도 생각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조그마한 어려움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고 이를 잘 극복해나가도록 가슴을 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 직장을 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였으면 합니다

학창 시절에 선생님께서 ‘앞으로 직장생활을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 여긴다면 너희들의 진짜 인생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직장을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생계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길 때 직장은 바로 내 생활이 되고 나에게 의미있고 활기차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나 행동이 밝아지게 되고 주변이 밝아지며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봅니다. 결국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직장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어디에서나 적용됩니다. 내가 넘치면 주위가 넘치고 내가 부족하면 주위가 부족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밝아지면 학교가 밝아지고 학생이 밝아집니다.

◇ 같지 않은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과 틀리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와 같지 않다고 그것을 틀리다고 하면 스스로 벽을 만들고 힘들어지게 되며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다르다고 할 때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에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것을 틀리다고 주장하여 서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같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교사는 혼자서만 얘기해서는 안된다. 만약 학생들이 말없이 듣고만 있다면 앵무새를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교사가 이야기를 하면 학생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둘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활발하면 할수록 교육효과가 높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학교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선생님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교가 가슴을 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다가가는 선생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기 쉬운 진로교육 정책



박 성 수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장

1. 진로교육의 필요성

그간 대학진학은 졸업 이후의 직업지위를 보장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진로지도란 대학 진학지도, 그것도 수능성적과 같은 입시성적과 내신성적으로 학교나 학과를 적정하게 배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학생들은 그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의 성적으로 갈 만한 대학을 적당하게 안내하여 합격하게 하는 것을 효과적인 진로지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 노동시장은 대학졸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학력자의 취업난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2년 4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오는 2020년까지 고졸 인력은 32만 명이 부족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인력은 50만 명 이상이 남아돌 것이라고 한다. 고용시장에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대졸자의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지는 반면, 기업들은 고졸 구인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와 학력 간의 불일치가 확대되면 국가적으로 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의 고통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졸자들은 고졸 학력이면 충분한 일자리에 몰려들 것이고, 취업이 되었다 해도 고졸자를 원했던 기업이나 하향 지원한 취업자나 양쪽 모두 불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성과 소질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는 평생회원권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진로교육이다. 학생 스스로가 대학진학을 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면 고졸자로서 미래를 설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대학을 진학한다면 수능성적과 같은 입시성적과 내신성적으로 학교나 학과를 적정하게 배합하여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현장 중심 진로교육 정책

가.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설정

진로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삶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잠정적 진로선택, 진학·취업의 결정 단계를 거치는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따라서 진로교육의 교육목표 도달은 한 학교급에 시작과 종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할 수 있도록 2012년 4월에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발표하였다.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은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목표를 명확히 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진로교육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은 정부나 시·도교육청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평가의 지침 및 준거가 되며, 교육과정 편성 및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진로 관련 콘텐츠 개발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학교에는 진로체험, 진로상담 등의 진로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진로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이며, 교사에게는 진로 관련 수업 및 진로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제는 진로교육에서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성취기준이 구체화·체계화되어 진로교육의 연속성과 적절한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의 도입

2011년부터 추진한 진로교육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자격을 갖춘 진로 진담교사로서 진로 진학상담 교사를 양성·배치하는 것이다. 2011년 3월에 ‘진로진학상담’이라는 새로운 교사 자격을 신설하였다. 수업과 진로지도를 병행하는 복유업 모델을 가져온 것이다. 진로진학상담 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지도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진로활동을 담당하면서 학생 진로 상담을 수행하고, 진로체험 등 다양한 학교의 진로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총괄책임을 담당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일반고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도와주며,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도와주고, 중학교에서는 소질과 적성의 탐색과 발견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이처럼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 진로교육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급 및 계열별 진로교사의 중요 직무 부분이다. 일반고에서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역할은 입학사정관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전통적인 진학부장이나 3학년부장의 역할과는 차별되는 것이다. 이상적인 모델은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진로진학상담 교사와 함께 진로 상담, 진로체험, 이수과목 선택, 포트폴리오 제작 등의 과정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사는 대학 입학추천서를 작성하고 학생들은 3년간의 활동 자료들을 대학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은 3학년때 내신성적과 수능성적만을 가지고 진로지도를 해야하는 현 체제의 진학부장이나 3학년 부장 선생님들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진학부장이나 3학년 부장이 있다고 하여도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역할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사정관이 있다면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있는 것이다.

특성화고에서는 취업지도에 역점을 두게 된다. 입학부터 취업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취업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맞는 자격증 취득, 관련 학습, 체험활동 등을 통한 취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입학부터 진로교육을 통해 준비된 3학년이 되었을 때, 취업담당 교사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취업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진로교사는 취업처를 발굴하고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성과 소질을 계발시키고, 준비시키며, 인성과 창의성을 구비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 역할이다.

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탐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각종 체험활동을 포함하는 진로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중학교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직업체험을 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중학교 진로교사는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진로교육담당 부서 설치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은 진로진학상담교사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모든 교직원이 진로교육에 대한 공통된 마인드를 갖고 조직적으로 진로교육을 할 때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시행되는 것이다. 단순히 어떤 부서의 계원으로서 진로교사가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 학교의 진로교사는 자신에게 부여된 수업 10시간, 상담 8시간, 기타 진로관련 업무 한 두 개를 소화하기에도 벅찰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는 진로교육 담당 부서를 만들고, 진로교사는 부장교사로서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을 총괄하여 모든 교사가 진로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일선학교에 진로교사가 배치되고 진로교육을 위한 교육목표도 제시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첫째,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2011년에는 ‘진로교사 직무 매뉴얼’,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 매뉴얼’을 보급했다. 2012년에는 ‘진로와 직업’ 스마트 워크북, ‘진로활동 프로그램’, ‘진로체험 매뉴얼’, ‘학교 진로교육 운영 모델’, ‘동영상 교육자료 약 200종(3~5분용)’, ‘드림레터 30종’, ‘학부모 진로교육 길라잡이’ 등 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손에 잡힐 만한 구체적인 진로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둘째,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세상을 이해할 수는 없다.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는 직접 직업세계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진로체험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 각급 학교에서 진로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기업·대학·공공기관·단체 등의 교육기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기관들이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수련회 등을 진로체험이나 진로캠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3일 또는 1주일 단위의 직장체험 프로그램 도입에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이 활성화되면 이를 기획하고 지역 기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역할은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몫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경험을 축적한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학교에 필요한 이유이며, 앞으로 진로체험은 진로진학상담 교사의 중요한 직무이자 학교 진로활동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학부모의 적극적 참여 지원이다. 진로교육을 이야기할 때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다. 물론 일정 부분 공감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이 분명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부터는 학부모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진로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부모 진로코치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멘토가 되어주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진로상담도 해주고, 직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는 등 진로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꿈과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진로캠프 운영, 자녀의 진로 교육과 관련한 학부모 연수 등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등을 송출하고 학부모 연수 자료를 학교에 보급한다.

넷째, '진로활동실(Career Zone)'을 확대한다.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진로교과 수업 및 상담이 가능한 '진로활동실' 설치가 필요하다. 진로교사와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받아갈 수 있는 '진로활동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학교 시설이 부족할지라도 지혜를 모아 '진로활동실'을 설치한다면, 학생과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진로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는 서울, 부산, 경남교육청의 진로활동실 시범운영 사업을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3. 제언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학력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적 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대졸자를 선호하던 삼성, 현대, 대우조선해양, 금융권, 한수원전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이제는 고졸자를 채용하고 고졸자가 일정 능력 이상을 갖추면 대졸자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대우를 하겠다고 한다. 즉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 서로가 공생발전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진로교사는 자신있게 학생들에게 '성공한 인생은 대학졸업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전문가 중에는 교육과정의 목적은 진로교육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이 말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멀리 보고 갈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학교나 모두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치열한 입시 환경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적성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를 선택하고 선택한 학과를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택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학교의 진로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지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진로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의 문제이다.

2012. 경남 진로교육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이 춘 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장학사

Ⅰ. 진로 적성 및 흥미 중심의 진로교육 계획을 기획하며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는 전문 지식, 핵심 역량,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출발점은 ‘자신을 잘 알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2012. 경남 진로교육 사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1년 진로교육 선도교육청, 2012년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2년간 10억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타시·도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사업들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Ⅱ. 2012학년도 경남 진로교육 주요 사업

☀ ‘진로의 달’ 운영

- 전 초·중·고 학교단위의 ‘진로의 달’ 운영 : 매년 5월(학교 자율적 운영)
- 진로관련 행사 : 꿈 발표대회, 부모님 일터체험, 진로UCC 대회, 직업인과의 만남, 직업 설명회, 1일 교사제, 단위학교별 집중 체험 주간 운영 등
- 기대효과 : 학교 중심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진로교육 선도학교 운영

- 운영 대상 : 초·중·고 23개교
- 예산 지원 : 커리어 존 구축비 포함 : 26,500천 원 ~ 56,500천 원
- 주요 역할 : 진로교육 중점 모델 개발 및 지역의 진로교육 중심학교

☞ 교과통합 진로교육 시범수업단 운영

- 구성 : 수업명사 및 수업 우수교사 20명, 자문위원 5명, 지역교육청 장학사 5명
- 수업 공개 : 시범수업단 교사별 연간 4회 교과통합 진로교육 수업 공개
- 자료 보급 : 교과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보급
- 기대 효과 : 교육과정 속에서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 활성화

☞ 교원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 운영 기간 : 2012. 4. ~ 2012. 8.
- 주요 내용
 - 1학점 15시간 기준 1,500여 명 진로교육 관련 연수(집합, 원격)비 지원
 - 진로교육 업무 담당자 교당 1명 의무 참가

☞ 진로진학상담교사 지원

- 구성 : 경남 진로진학상담교사 265명
- 협의회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금으로 협의회 자체 사업 지원
- 역량강화 연수 지원
 - 〈진로 의사결정을 위한 슈퍼바이저 연수〉
 - 대상 : 2011년 선발 진로진학상담교사 중 희망자 60명
 - 연수 기간 : 진주(8.6~8.8), 통영(8.9~8.11), 김해(8.16~8.18), 창원(8.20~8.22)
 - 〈진로진학상담교사 심화 연수〉
 - 대상 : 진로진학상담교사 전원(265명)
 - 연수 기간 : 겨울 방학 중(예정)
 - 〈진로진학상담교사 워크숍〉
 - 대상 : 2기 진로진학상담교사 148명
 - 기간 : 겨울방학 중 1박 2일 예정
 - 〈진로진학상담교사 국외체험 연수〉
 - 대상 : 2기 진로진학상담교사 12명 내외, 미국 캐나다
 - 기간 : 6월초 예정

☞ 커리어 존 구축·운영

- 구축 계획 : 초·중·고 92개교 내외, 교당 25,000천 원~50,000천 원 차등 지원
- 선정 계획 : 진로교육 정책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희망 중·고등학교
- 기대 효과 : 학교단위의 진로교육 여건 조성 및 진로교육 지원 강화

☞ 우수 커리어포트폴리오 포상 계획

- 대상 :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
- 운영 방법 : 학교대회(예선)→지역교육청대회(준결선)→도교육청대회(결선)
- 포상 계획 : 학교대회 학교장상, 지역교육청대회 교육장상, 도교육청대회 교육감상

☞ 제2회 경남진로진학체험전 및 대학진학박람회

- 일시 : 2012. 7. 14.(토)~7. 15.(일), 2012. 12. 13.(목)~12. 16.(일)
-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예정)
- 대학진학박람회 : 대입전형 상담, 심층면접, 수시대입 상담, 진학특강 등
- 경남진로진학체험전 : 경남교육박람회와 연계 개최, 진학진로 특강, 진로직업 탐색 및 체험, 직업체험 진로적성 검사 및 상담, 대학 입시 상담 등

☞ 진로교육 동아리 운영

- 공모에 의해 학생 및 교사 동아리 30개 선정, 동아리당 2,000천원 지원

☞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주요 업무 :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진로진학 사이버 상담 및 방문 상담, 진로진학 관련 각종 연수 지원, 진로관련 심리·적성검사 지원

☞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 진로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기부를 활용한 진로체험지도 외 20여종
- 교육과학기술부 개발 자료 인쇄 보급 : 진로진학상담교사 업무 매뉴얼 외 10여종

☞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

- 대상 및 내용 : 중·고 64개교 선정, 단위 학교가 원하는 시기와 요청 내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설명회 지원

☞ 학력 진단을 위한 성적분석 시스템 보급

- 보급 대상 및 시스템 내용 : 일반고 65개교, 전국연합학력평가 답안지 처리용 이미지 스캐너 및 성적 산출 프로그램

☞ 학과계열 선정검사

- 운영 대상 :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45,000여 명)
- 주요 내용 : 온라인 검사로 학생의 학과와 계열 선택의 객관적 자료 제공

☞ 진로캠프 운영

- 운영 기간 : 2012. 4.~2012. 11.
- 운영 분야 : 부모와 함께하는 토요 진로캠프, 전환기 진로캠프(초6, 중3, 고3), 방학 중 진로캠프
- 예산 지원 : 교당 300만 원~500만 원, 차등 지원

☞ 중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운영 기간 : 2012. 4. ~ 2012. 12.
- 대상 : 공모에 선정된 중학교 150개교
- 예산지원 : 교당 200만 원 ~ 400만 원, 차등 지원

☞ 진로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및 학부모 진로코치 연수

- 진로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 대상 : 학부모 2,700명
 - 기간 : 2012. 5. ~ 2012. 12. 1인당 10시간 이상 운영
 - 운영 방법 : 진로교육 선도학교를 활용하여 상설과정, 집중과정, 요일 운영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교육청별로 운영, 추후 지역교육청 아카데미 인원 배정 계획
- 학부모 진로코치 연수
 - 대상 : 학부모 200명(학부모 리더와 연계 운영)
 - 기간 : 2012. 4. 30.(월) ~ 5. 3.(목), 4일간, 20시간 연수
 - 연수 장소 : 경남교육연수원

III.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꿈꾸며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학교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학교 관리자와 진로업무담당자, 담임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진로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 2012년에는 중·고등학교에 265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그들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도와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초·중·고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 학부모 연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아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진로직업 체험기회 제공,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진로상담 및 검사, 진로탐색 기회 제공 등 진로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주길 기대한다. 학생들이 '꿈과 희망이 있어 행복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진로 보물 창고

- 커리어넷 <http://www.career.go.kr>
 -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흥미, 적성 등 심리 검사, 직업 및 학과 정보, 진로 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창의·인성교육넷 <http://www.crezone.net>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수업 자료, 학교 인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활동, 교육 기부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에듀팟(창의적 체험 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 <http://www.edupot.go.kr>
 - 학교 인팍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들을 학생 스스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학교생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를 밝히는 커리어코치 활동



이 채 원
진로진학센터 커리어코치

1.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의 목적

미래사회는 인적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인식아래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중학생 커리어코치(career coach)진로교육’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우리나라가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을 실천한지 30년 이상 지났지만, 진학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던 진로교육은 선진국 진로교육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긴급함을 강조하면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춘 진로교육의 한 부분으로 ‘중학생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학생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은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중심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단계별 인간성장에 있어서 진로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2011년 진로박람회(진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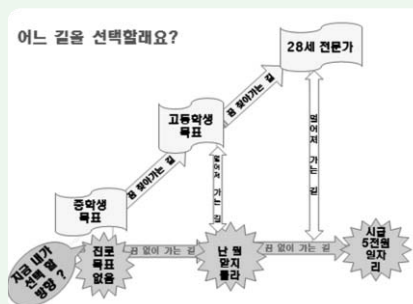


그림2. 나의진로방향 (2010.이채원)

2. 커리어코치 진로교육 방법

인간은 성장하면서 각 발달 단계에서 형성되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방법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생산적인 사회성원으로, 행복한 개인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중학생들은 진로인식 단계를 거쳐서 진로탐색 단계에 도달해 있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맞춰 커리어코치들은 중학생들에게 단계별 성취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그 목표들을 학교생활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촉진적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 2010년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정책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특별강사 40명을 선발하여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중학교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을 맡게 하였다. 갑자기 시행된 정책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했지만 2011년도 들어와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17명의 강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을 진행 하게 되었다.

수업진행방법은 한 학급당 3시간 연속으로 수업과정이 구성되었는데 2010년에는 1학년만 진행하였다가 2011년도에는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신청에 따라 진로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교육구성을 살펴보면 1교시는 자기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2교시는 진로탐색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였고, 3교시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목표를 세운 후, 그 목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시간이 되었다.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을 통해 경상남도내 많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 보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인지 탐색해 보고, 계획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채원(2010)의 연구에 따르면 커리어코치 진로교육 모니터링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들의 설문지를 분석해 본 결과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은 중학생들의 진로인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진로교육 중요도 인식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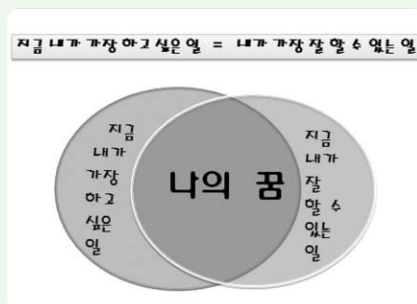


그림3. 내 꿈 찾는 법(2010|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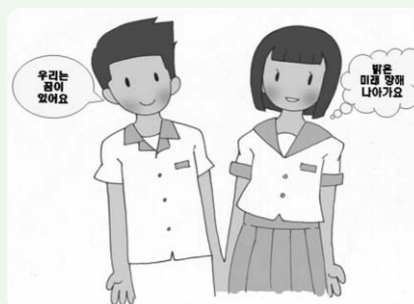


그림4. 꿈이 있는 중학생 (2010|채원)

하지만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을 신청하여 직접 경험했던 중학교 교사들이 느낀 한계점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집단 진로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찾을 수 없었으며, 3시간의 진로교육이 주입식 전달방법으로 전개되는 점, 둘째, 지속적인 진로상담으로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의 아쉬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1회로 마무리 되는 점, 마지막으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로 신학기에 갑자기 수업시간 조정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개선점으로 삼았다. 다음 도표에는 2010년 커리어코치 진로교육 모니터링에 참여한 중학교교사들의 설문 응답자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순위	좋은 점	개수	비율%	개선 점	개수	비율%
1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19	30.6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14	32.6
2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고, 진로선택의 방향을 잡을 기회를 가졌다.	18	29	시간이 짧아서 학생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10	23.3
3	폭넓은 직업세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직업체험 간접경험을 할 수 있었다.	6	9.6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 설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8	18.6
4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 유발의 계기가 되었다.	5	8	정규수업시간 중 참,재 시간을 많이 활용하여 지속성을 유지 하였으면 좋겠다.	5	11.6
5	진로탐색을 스스로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4	6	학기 초에 행정적으로 수업시간 확보하여 운영상 번거로운 점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9.3
6	기타	10	16.8	기타	2	

(2010년 커리어코치 진로교육 모니터링에 참여한 중학교교사 응답자가 기재한 분석표)

3.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에 거는 기대

커리어코치들이 진로탐색기에 돌입한 많은 중학생들에게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하여 깊이 있게 진로를 탐색하게 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평생직장의 소멸이나 청년실업자의 증가, 고용환경의 급격한 변화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진학 및 취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었고, 그로 인해 추가로 사회 재비용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점을 자주 경험한다. 그러므로 미래의 인적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임을 인식한다면 올바른 진로지도들이 학교나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진로지도의 실천 방향은 일생 동안 진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많은 학교에서 전문적인 진로진학교사들이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을 대신하게 되면서 지난해와 같이 커리어코치 진로교육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학교 커리어코치 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경남의 많은 중학생들과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검토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은 매우 보람 있었다.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 로드맵을 만들고 각 단계별 성취감을 느끼며 활기찬 학교생활을 해 나가게 되길 희망해 본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떠나는 꿈찾기 여행



강 분 순

남해 미조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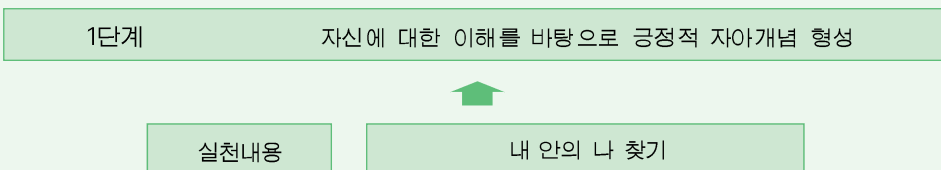
아이 둘을 대학에 진학시키면서 내 아이의 적성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부족해 당혹해했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올해 처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주1회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그러한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찾아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해 봄으로써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생활태도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먼저 긍정적 내 안의 나 찾기 활동을 통하여 자아개념을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체험함으로써 진로의식을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 꿈을 설계해 보았다.

이 글은 작년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 펼치며



진로를 계획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기 이해이다. 나의 장점과 단점, 적성, 흥미, 가치관, 능력 등을 제대로 파악했을 때 자신에게 맞는 꿈을 설계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성공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시간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주제	활 동 내 용
나는 누구인가	나의 과거 모습 들여다보기
	나의 장점 찾기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 찾기
	나의 뇌구조 그리기
	나의 자화상 그리기
	나를 홍보하라



2단계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찾아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직업 탐색



실천내용

다양한 직업 탐색하기

진로를 계획하는 데에 다양한 체험활동은 아이들에게 많은 자극과 지침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아이들 각자에게 맞는 빛깔의 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지식채널 e’의 영상물 보기, ‘교육방송의 직업탐구’, ‘성공에감 직업 속’으로 등을 시청하고 커리어넷의 메뉴를 통한 간접 직업 체험을 하였다.

직업에 대하여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들을 이해하고 이색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이다. 직업의 종류는 매우 많으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직업의 종류는 몇몇 인기직업에 불과하다. 직업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면 진로를 선택하는 폭도 좁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에서 탈피하고 좀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영역활동을 해 보았다.

활동주제	활 동 내 용
나의 꿈은 무엇인가?	• 부모님 직업 인터뷰 • 우리집의 직업 탐방
	우리 주변의 직업 알아보기 - 우리 이웃집 사람들의 직업 알아보기
	직업 탐색 (미래의 유망 직업)
	1. 인터넷쇼핑 관련 직업
	2. 실버산업 관련 직업
	3. 환경친화적 직업
	4. 재택근무 직업
	5. NGO관련 직업
	이색 직업 탐방
	내 인생의 모델 찾기



인터넷쇼핑 관련직업

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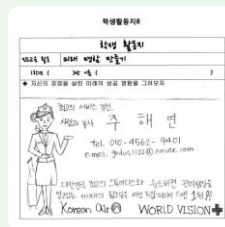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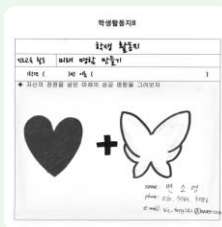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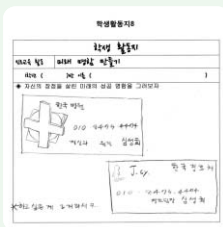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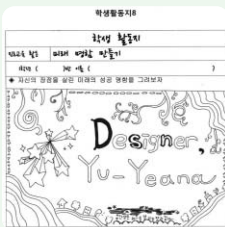
문제의 요인에 따라 알맞은 진로 계획 및 진로 성숙방법 모색

실천내용

진로계획 수립, 바람직한 직업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과 흥미 있는 직업과의 차이를 알고 흥미가 직업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강조하고 적성유형에 따라 어떤 직업군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인내하여 자신과 같은 적성유형에 대해 조사해 본다.

활동주제	활동 내용	
진로 계획 수립하기	진로방향 탐색	
	진로편지 쓰기	부모님께 쓰기 선생님께 쓰기
	직업적성 알아보기	
	나의 꿈 독서활동	
바람직한 직업관	꿈을 이룬 나에게 편지쓰기	
	성공한 나의 기사 쓰기	
	미래 명함 만들기	
	게시판을 활용한 진로지도	
	가치관 탐색	
	나의 희망 직업	



미래명함

3. 마무리하며

진로교육은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인차를 존중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다채롭게 꾸려갈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학생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내 안의 '나'를 들여다봄으로써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면서 학생들이 알지 못했던 직업의 세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활동들이었다.

학생들의 꿈을 향한 힘찬 날개짓을 도우며



김 성 자
창원 사파고등학교 교사

2011년, 진로상담교사 활동의 원년. 한마디로 숨 쉴 틈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한 해였다.

3월이 시작되었지만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학교단위 진로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첫 발령을 받은 학교에는 진로교육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예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여서 교육청 단위 진로교육 계획에 의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각종 진로관련 공모 계획에 무작정 응모하였다. 그 결과 진로동아리 운영 공모 계획,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모 계획, 창의·인성 교과 연구회 운영 공모 계획 등에 선정되었다. 이렇게 진로 체험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첫 수업시간, 시험이 없는 과목이라 학생들의 태도를 우려했었는데 결과는 의외로 좋았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안내해 주는 것에 학생들은 관심과 호기심이 많아 호응이 좋았다. 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배우고 이해도를 측정하는 수업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고 결정을 내리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다음 활동들을 추진하였다.

활동 내용	추진 일정	활동 내용	추진 일정
개인파일 준비, 진로상담실 비치	3월	진로의 달 행사	5월
커리어넷 무료 진로검사 실시	3월	입학사정 관제 설명회 (포스텍)	5월
에듀팟 기록, 관리	3월	진로동영 상 감상문쓰기대회	5월
학교 계획 진로검사	4월	다양한특강(저작권, 다문화 박물관 경제 등) 실시	연중
검사결과 상담	3,4월	진로진학 소식지 발행	3회
진학설명회	4월	다양한 직업세계 영상체험	연중
생애단계 별진로교육교사연수	4월	학업계획(학습코칭)	연중
진로동아리(꿈나르미) 운영	4월	진로관련 지역봉사활동 실시	2회
독서기록장 제작 기록 지도	연중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1,2학년)	3회
창의·인성교과연구회 운영(동아리)	4월	대학멘토링제 운영(연세대)	6월~
커리어노트 제작 활용	5월~	지역자원 활용 직업인 탐방	6월

활동내용	추진 일정	활동 내용	추진 일정
자기소개서 작성지도 및 면접체험(3학년)	6월	커리어포트폴리오제작대회	9월
경남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원 활동	6월~	지역축제 및 체험학습 참가 계획	10월
또래 진로집단상담 실시	3회	비전보드 만들기	11월
직장 봉사체험 프로그램 참가	8월	진로체험전 추진위원(T/F) 활동	11월,12월
진학박람회 참가 및 운영도우미	7월	진로체험전 학생 참가	12월
수시모집 진학상담	9월~	성공한 직업인 특강	12월
명함 만들기대회	9월	직업카드 골든벨	12월
에듀팟 기록 지도	연중	학교축제시 진로부스 운영	12월
여러 대학 진학설명회(3학년)	9월	커리어노트 학생부 기록	12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운영하였지만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 경험을 통해 얻은 방법 중 추천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문화적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해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여러 분야별 특강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사전 교육과 준비가 없는 경우에는 집중력이 없어 매우 어수선했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특강 후 자신의 진로관련 소감을 에듀팟에 기록하게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그 외 진로탐색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특강을 준비할 때마다 미리 특강 소감문지를 인쇄하여 특강을 들으면서 기록하게 하였다. 물론 우수 특강 소감문은 시상하였다.

두 번째는 비전보드 제작활동이다. 1년 동안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뭔가 허전하였다.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11월말부터 비전보드 제작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매우 만족스러웠다.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한 장의 보드에 다양각색으로 펼쳐 보였다. 물론 교사가 많은 준비하여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때 잡지나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3학년 수시 대입 자료를 활용하면 매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결과물은 학교 축제 때 진로부스를 운영하여 전시하였다. 다른 사람이 잘 하는 활동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꿈인 것처럼 말하던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을 파악하여 자신의 꿈을 말하고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진로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진로교사들은 매달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진로교육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로교사들의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해 진로교육수업자료를 개발·연구하여 보급하기도 한다. 많은 진로교사들은 오늘도 어디선가 꿈을 향해 돌아나는 날개를 가진 학생들이 마음껏 날개짓을 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전 UP 프로그램을 통한 체육 학습 능력 신장



변 찬 진

창원 구산초등학교 구서분교장 교사

체육수업을 하다보면 항상 운동기능이 뛰어난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있기 마련이다. 운동기능이 우수한 아이는 보통 자신감 있게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자신감이 없으며 체육수업에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운동을 잘 못하는 아이도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수업, 체육활동에 만족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높이는 수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해왔다. 이에 도전 UP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학습 성취도와 체육 학습 능력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었다.

1. 도전 UP 프로그램이란?

도전 UP 프로그램이란 학습자의 출발점 학습능력을 진단하여 학습자 수준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자기주도적으로 도전하여 개인별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체육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이다.

단계	과 정	내 용	활동 모습
1단계	출발점 진단	▶ 학습자의 개인 수준 파악	
2단계	구체적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동기 부여	
3단계	학습방법 탐색	▶ 학습방법 탐색 및 인지	
4단계	도전활동	▶ 수준별, 단계별 도전활동 수행	
5단계	평가 및 반성	▶ 학습결과 확인, 반성 및 피드백	

[도전UP 프로그램 5단계]

가. 출발점 진단

개인별 학습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먼저 기록을 측정하여 개인의 출발점이 다름을 인식시키고 학습활동을 통해 다음 단계 수준을 목표로 열심히 도전하면 된다는 학습동기를 부여하여 실제로 운동기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학습의욕을 갖게 하였다.

나. 구체적 학습 목표 제시

학생들은 운동에 대한 의욕이나 능력, 경험 등에 관해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다. 학습자 개개인 출발점의 차, 학습 속도의 차, 학습 성취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육학습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인차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운동 기능이 부족한 학습자는 학습의 흥미를 잃게 되고 운동 기능의 향상이나 성취

감을 맛보기 어렵게 된다. 개인의 학습 속도의 차를 고려한 학습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성취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small step으로 과제가 제시되어야 기능 향상과 더불어 지식, 태도의 향상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자기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제자리 멀리뛰기 수업을 하였을 때 바른 자세를 배운 뒤 멀리뛰기 기록을 측정하여 출발점 진단을 해 보니 80cm부터 160cm까지 다양한 기록들이 나왔다. 80cm를 기록한 아이에게 ‘너는 출발점이 80cm이니 바른 자세를 생각하며 90cm를 목표로 열심히 도전하면 된다. 160cm를 기록한 아이가 연습하여 170cm를 기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였고 목표에 도전하여 100cm를 기록하였으며 아주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다. 학습 방법 탐색

도전 UP 프로그램에서 개인별 수준 목표에 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학습방법을 탐색하고 인지하여 기능을 익히기 위해 적용하려는 태도도 필요하다. 체육도 인지적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항상 바른 자세와 방법을 생각하면서 학습활동을 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머릿속에 학습방법과 바른 자세를 생각하며 도전할 때 다음 목표에 더 잘 도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라. 도전활동

‘도전 up 레벨 up 짹짹 파이팅!’ 체육시간이면 외치는 구호처럼 학습활동은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도전하는 활동 시간이다. 자기의 개인 학습 수준을 알고 다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학습 수준과 능력에 맞는 학습방법을 선택하여 도전하도록 하였다. 뽀글뽀글에서 앞구르기 학습활동의 경우 1단부터 5단 높이의 뽀글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수준별, 단계별 코너를 마련하여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 연습한 뒤 다음 단계에 도전해 보도록 하였다.

마. 평가 및 반성

학습활동을 통해 다음 수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연습한 후 도전해 보고 2차 측정을 해 본 후 1차 측정 기록과 비교해 보게 하여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게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향상된 기록을 보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친구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해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었다. 기록이 나아지지 않은 학생들은 재연습과 재도전을 하도록 하였고 방과 후에 보충활동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활동 중 알게 된 점과 느낀 점을 체육일기장에 기록하게 하여 반성해보게 하였다.

2. 성취감, 만족감이 높은 즐거운 체육시간

도전 UP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수준별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려고 하여 개인별로 체육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학습에 대한 만족도 및 성취감이 높았으며 도전 UP 프로그램으로 자기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체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체육수업을 할 수 있었다.

수업 공개를 통한 명품 교사 되기



전 수 근

진주고등학교 수석교사

학교 생활에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 중 하나는 ‘우측통행’입니다. 복도나 계단 등에 ‘우측통행’이라는 안내 표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0년 7월 1일부터 ‘우측통행’이 전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좌측통행’이 몸에 배어든 습관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치기가 힘든 몸에 배어든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발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우화에서 경주가 이루어진 공간이 육지가 아닌 바다라고 설정하였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 교육 현장은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숨이 턱에 차오르도록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당연히 그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동료 교사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부 교사들은 자신만의 몸에 밴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나, ‘한 사람의 생애를 망치기 위해서는 단 한 명의 교사면 족하다.’는 말은 모두 교사의 중요성을 간명하게 나타낸 말입니다.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태인의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은 답하기를 “아, 경찰서장을 찾으시는군요.”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 수비대장 말씀이십니까?” 이 말을 듣고 랍비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의 선생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미래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좋은 수업은 열심히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없이 공개하여 자신의 교수 방법에 대한 역발상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교학상장(敎學相長)’ 우리 교사들이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새겨야 할 표현입니다. 한 번의 수업 공개는 하나를 얻지만 열 번의 공개수업은 교사 자신은 열 개 이상을 얻게 되고, 동료 교사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명품 브랜드의 물건은 좋고 오래될수록 그 아름다움의 가치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단순히 오래 되었다고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수업에 있어서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한다면 그 가치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이 맡은 교과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업 드러내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연수 강의 중 어느 교수님께서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낸다는 것은 솔직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살아 갈 학생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교사 경력 7년 된 젊은 여선생님께 큰 감명과 배움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자신만의 교육관을 세워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육관은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계획서나 학교교육계획서를 작성할 때만 형식적으로 채워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만의 교육관을 세워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에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교육 활동의 목표 및 방향

- 재미있는 수업을 하자. (학생들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수업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 준비된 수업이 나를 즐거운 교사로 만들어 준다. (준비된 교사가 자신감 있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다.)
- 내 자신이 최고의 스승이 되게 하자. (학생들은 나를 보고 배운다는 것을 늘 명심하자.)
- 교사는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주는 조력자이다. (교사는 학생들 공부에 방향과 방법을 잡아주는 조력자,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직접 부딪혀야 하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라는 것을 늘 강조한다.)

- △△고등학교 영어과 김△△ 교사의 ‘나만의 교수·학습 전략’에서

우리 교사들은 도종환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는 시 구절의 내용과 같이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저부터 저의 모든 수업을 공개하여 제 자신을 명품 브랜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책읽기 속에 숨은 보물이야기



김 병 순

창원 한사랑유치원 교사

3월!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아이들이 음률, 쌓기, 역할, 언어, 수·조작, 미술놀이영역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자유선택활동시간!

여러 가지 블록을 이용해 열심히 탑을 쌓고 무너뜨리는 재미에 “와” 탄성을 지르는 아이들,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들, 어설픈 그림에 뽀뽀뽀 글씨를 적어 “선물이에요” 라며 사랑의 편지를 건네주는 아이들의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행복을 느끼게 해 주는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쌓기 방과 역할 방의 경쟁은 아주 치열해서 늘 빈자리가 없고 대기자도 많지만, 책이 있는 책보기 방에는 늘 1~2명의 친구들이 주 단골고객이었다.

평소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를 좋아하는 나는 ‘왜 아이들이 책보기 방에 잘 들어가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책과 친구 되는 그날을 꿈꾸어 보았다.

▣ 모두가 책과 친구 되는 그날을 꿈꾸며

1. 아이들과 함께했던 독서 활동

◆ 책보기방 환경 구성		◆ 책보기방에서의 Good Morning 독서활동	
◆ 초등학교 도서관 활용		◆ 부모님과 함께 하는 독서 신문 꾸미기	
◆ 학부모 자원봉사자의 독서 도우미 활동		◆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활동	

2. 언어활동 프로그램

내용	지도 내용	활동 내용
듣기	언어활동 중 가장 기초가 되며 비중이 높은 만큼, 듣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듣기에 집중하도록 한다.	- 가라사대 게임/ 텔레파시 게임 모둠토의활동
말하기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고력 개발 및 자연스런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동시발표/ 용기마이크/ 발표왕! 주말 지낸 이야기/ 내 목소리 녹음하기
읽기	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의 과정을 중시한다.	- 동화책의 표지 읽기/ 독서왕! 역할 나누어 읽기/ 다시 읽기
쓰기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 동화책의 표지 읽기/ 독서왕! 역할 나누어 읽기/ 다시 읽기

3. 기타활동

◆ 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 골든벨		◆ 학급 홈페이지를 통한 독서활동 안내 및 홍보	
--------------------	---	----------------------------	---

▣ 행복했던 독서활동을 마무리 하며

처음엔 동화책을 읽고 난 느낌을 물었을 때 “좋아요, 재밌어요.”라는 단순한 언어 표현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선생님 꿈 친구랑 겨울잠 자는 쥐는 서로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 너무 사이좋은 친구들이예요.”라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 독후 그리기 표현에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나타나며, 동극활동, 동시발표, 이야기 나누기 등에서 소극적이던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분 좋은 아침!

오늘도 나의 사랑스런 제자들은 등원과 함께 가방을 정리하고 제일 먼저 책보기 방에 들어가 동화책을 꺼내 들고 독서활동을 시작한다. “책이 그렇게 좋으니?” 라고 물으면 아이는 “재밌어요. 책 속에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라며 제법 의미 있는 말을 던진다.

“얘들아, 책을 사랑하고 즐기는 너희들이 있어 선생님은 언제나 행복하단다.”

교육기부 호시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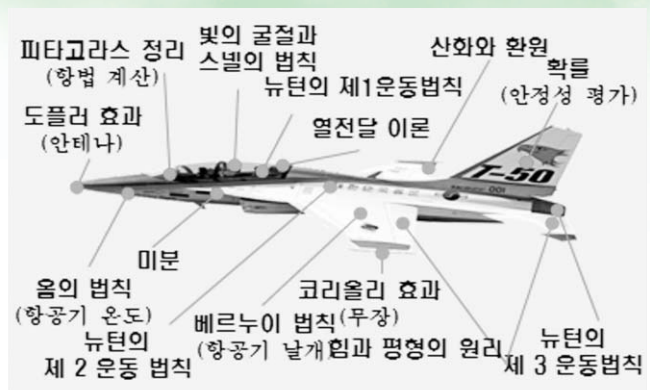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종합항공기 제작업체인 KAI는
항공기 속의 수학, 과학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에비에이션 캠프를 운영하여 교육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 캠프 www.kaicam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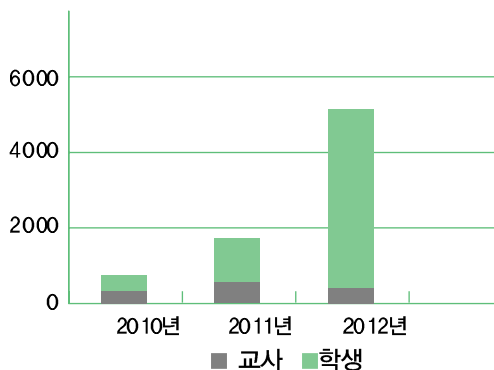
[프로그램]

구분	교사	학생
정원	• 차수당 40명	
시간	15시간	4~6시간
내용	• 이론/실습(4과목) • 항공기 생산현장 체험 • 창의인성 특강 • 항공우주박물관 견학	
장소	경남사천 KAI본사	

[항공기 속 수학/과학 공식]



[캠프 운영실적]



※ 2010, 2011 과학문화상 수상
(교과부장관 표창)

[항공우주체험관 건립]



※ 캠프운영 및 항공체험시설로
2012년 6월 개관 예정(경남 사천)

대학과 연계한 신나는 토요 스포츠 교실!



류 진 숙
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1. 준비하고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5일수업제 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과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학교 내에서의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학교 간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한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었다. 그 결과 관내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되었고 진주교육대학교와 MOU 체결을 하여 주5일수업제에 대비하여 토요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2011년 11월 23일 진주교육대학교와 MOU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첫째, 토요휴업일 학생 활동지원 운영 및 예산 지원 둘째, 교대생 멘토링제 예산운영 및 예산지원 셋째, 교대생 임용률 향상방안 모색 및 지원(자문단-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3명 지원) 넷째,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이다.

2. 신나는 토요 스포츠교실 운영

진주시내 초등학교에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였으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어 최대한 수용 가능한 26개교에서 374명만을 선정하여 축구교실과 배드민턴교실을 개강하게 되었다. 두 종목 모두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가 73%를 차지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학교의 인솔교사들이 한나절을 반납하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데 수고를 하고 있어 우리지원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안하나 참가학생들이

신나게 운동하는 모습으로 보상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당초에는 편성된 자체예산으로 운영했으나 이어서 도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으로 1년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참가학생용 팀조끼 30벌을 준비하고, 축구코치들에게 축구화, 스타킹, 정강이 보호대를 지급하였고, 배드민턴 코치들에게는 배드민턴 라켓, 셔틀콕 등을 제공하였으며 전코치들에게 유니폼 티셔츠, 호투라기를 지급하여 코치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 지도 경험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호응을 받고 있다.

가. 미래의 국가대표

축구교실에는 12개교에서 202명이 격주로 참가하여 학교간 대항으로 3계임을 시간대별로 경기진행을 하고 있다. 진주교육대학생 6명이 자원봉사 코치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시간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진주교육대학교 운동장을 누비는 미래의 국가대표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고 있다.

나. 셔틀콕을 날리며

진주교육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14개교의 172명이 참가하는 배드민턴 교실은 두 조로 편성하여 격주로 참여하고 3개 반이 순차적으로 기능 연습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역시 진주교육대학교 학생 6명이 자원봉사 코치로 수고해 주고 있다.

3. 기대하며

토요스포츠 교실 운영으로 저소득층과 맞벌이가정 자녀의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대학과 연계한 토요프로그램은 진주 지역의 주5일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축구교실은 주말 경기로 상설화하여 주말 축구리그전으로 정착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와 교육기부 기관 또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좀 더 폭넓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활동들을 사회가 함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래 · 운동 · 책 읽는 학교로 3H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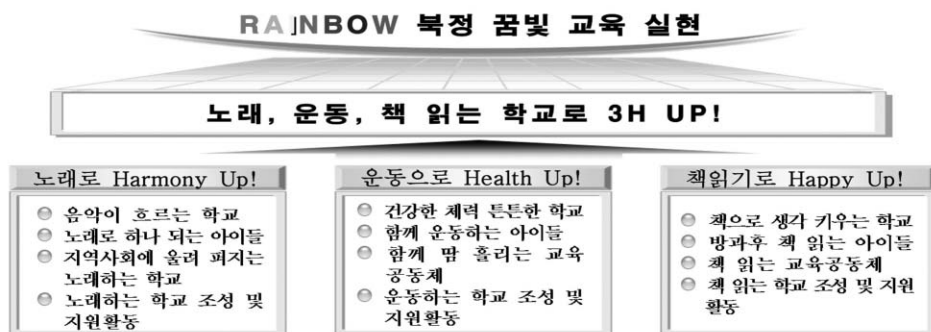
남 상 호

양산 북정초등학교 교장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창의적 인재양성에 두고 교육과정 운영을 혁신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며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교육 활동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RAINBOW 북정 꿈빛 교육 실현'을 학교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래, 운동, 책 읽기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꿈을 계발함으로써 조화로운 심성과 건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학교특색 교육활동을 운영하였다.

1. 『3H Up!』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 학생 · 교사 · 학부모의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래, 운동, 책 읽는 학교로 조화로운 인성(Harmony), 건강(Health)하고 행복한(Happy)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학교특색과제 추진 체계를 정립하였다.



2. 『3H Up!』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가. 노래하는 학교로 Harmony Up!

음악교과시수 증배로 '노래하는 나 기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토요일 전일제로 음악교과 심화프로그램인 음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영역 중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분야 하나를 택하게 하여 음악 교과시간에 배운 내용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래로 하나 되는 음악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레인보우 챔버오케스트라, 하모니 합창단, 스트로크기타부 등이 동아리활동 시간과 방과후, 방학중 캠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창단된 레인보우 챔버오케스트라는 현재 3~6학년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북정음악제 공연(2011.6.9), 양산교육지원청 독서행사 시상식 연주(2011.11.8), 2012년 2월 제2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2011년 6월 9일 개최된 제4회 북정음악제는 여름날 저녁시간, 본교 야외특설무대에서 '꿈을 노래하는 학교, 교육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를 테마로 하여 학생, 교사, 가족, 초청공연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이 음악으로 하나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였다. 또한 학부모 합창단을 조직하여 양산교육지원청 주최 2011년 '노래로 하나 되는 학부모 합창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어머니 합창단 활동은 학부모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자녀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부모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었다.

나. 운동하는 학교로 Health Up!

체육 교과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학생들 체력요소에 관한 내용을 확대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평생체육의 일환으로 '운동하는 나' 단원을 체육교과에 신설하여 1인 1종목을 선정하게 한 후, 자신이 정한 체육 종목에 대하여 자기 훈련 계획서를 세우고, 방학과 학기동안 꾸준히 연습한 결과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는 꿈빛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1년 4월 16일(토) 전일제로 체육교과 심화프로그램인 체육꿈나무 육상대회를 양산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였다. 육상영재발굴과 모든 학생들에게 육상 전용 경기장에서 뛰어보는 경험을 갖게 하여 육상국가대표가 된 듯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우수한 육상선수를 선발하여 꾸준한 훈련으로 2011학년도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체육동아리(학교 스포츠클럽)인 육상부, 줄넘기부, 배드민턴부, 축구부, 웰빙건강지킴이부를 조직하여 2~6학년 학생의 35%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학기중과 방학중에도 활동하여 각종 대회 출전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웰빙건강지킴이 부는 학생들의 체지방, 근육량을 관리하고, 비만학생과 저체력학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학생들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1년 10월 1일(토) 북정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하여 학생, 학부모, 북정동 주민, 교사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사전에 각 종목과 참여여부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함께 땀 흘리는 마을 축제가 되었다. 그리고 평생체육의 일환으로 북정어머니 배드민턴 동아리와 배구 동아리를 만들어 배드민턴과 배구 숙련자 및 초심자인 어머니와 교사들이 함께 배드민턴과 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부모들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이 교사들에게는 많은 피드백이 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부모에게는 체육활동 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다. 책 읽는 학교로 Happy Up!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일시적인 독서행사가 아닌 매월 주제가 있는 글벗누리 독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여 행복한 책 읽기가 되도록 하였다.

활동주제	시기	내용	활동 모습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04. 23 ~ 05. 15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하여 《나는야 책의 달인》의 5분야 실시	
날마다 도서관 나들이	05. 16 ~ 06. 20	책을 빌릴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게 하여 다독반에게 선물증정	
독서엽서쓰기	06. 21 ~ 07. 21	책을 빌릴 때 받은 우편엽서에 책을 소개하거나 작가, 출판사에 편지 쓰는 행사	

또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으로 양산자원회수시설내의 양산타워 북카페와, 양산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독서체험활동을 했으며, ‘찾아오는 독서프로그램’으로는 김해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프로그램으로 ‘역사논술’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담당교사와 전담사서, 학부모 도서관도우미가 ‘놀이로 즐기기/ 눈과 귀, 손으로 즐기기/ 온 마음으로 즐기기’라는 주제로 도서관 3종 경기인 독서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학부모와 함께 온 몸으로 즐기는 독서교실을 운영하였고 겨울방학 중 책 속 보물찾기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독서체험활동과 ‘한 줄 감상문 쓰기’를 하여 365일 쉼 없는 도서관을 운영하였다.

가정과 연계한 책 읽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북정교육과정 설명회’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출발식’을 실시하였고 10월 도서관 행사인 ‘책 여행 보내기’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행사를 실시하였으며 11명의 학부모가 현재까지 26회에 걸쳐 1학기에는 매주 화요일(10:00~12:00), 2학기에는 매주 목요일 글벗누리도서관에서 독서토론 및 독서 퀴즈, 일반 독서토론을 하며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였다.



제4회 북정음악제



교내육상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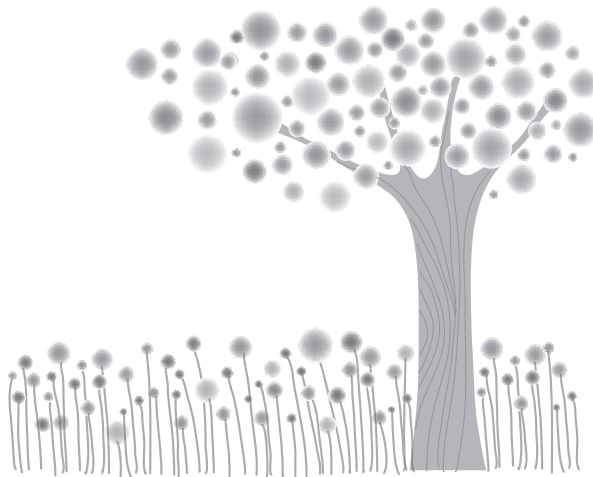


독서체험활동

3. 『3H Up!』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정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노래 · 운동 · 책 읽는 학교로 3H Up!’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얻었다. 챔버오케스트라가 ‘양산시 글벗 독서 행사에서 축하 공연을 하였으며 학부모 합창단이 ‘학부모합창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제4회 북정음악제는 교육공동체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지역사회 음악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운동하는 학교 운영으로 교육장기육상경기대회에서 준우승을 수상하였으며 가족독서골든벨, 가족신문만들기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학년도에도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학교, 건강한 체력으로 튼튼한 학교, 책으로 생각을 키우는 행복한 북정초등학교가 되기 위한 즐거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의령 얼 이어가는 ‘호국의병소년단’



김 대 섭

의령초등학교 교장

1. 출발! ‘호국의병소년단’

의령은 조선시대부터 충의의 고장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고장인 반면 현재, 경남에서 지역적으로나 인적으로 가장 작은 군에 속한다. 그러나 의령초등학교는 충의의 고장이라는 자부심과 102년이라는 학교의 역사를 자랑하며 의령군의 중심학교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6월 1일은 제2회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을 맞이하게 되고 본교의 교육 활동도 우리 고장 의령 얼 계승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 되어 교육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며 특히, 의령군청, 의령교육지원과의 연계활동으로 ‘호국의병소년단’을 조직하여 의령의 3얼 정신인 충의, 승문, 예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2. ‘호국의병소년단’의 의령 얼 이어가기

가. 충의 정신 함양 프로그램

1) 의병 탐구 활동

의령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에 대한 프로젝트 탐구학습을 학년 수준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2) 의병사랑 산 오르기 체험학습

4월 13일(금) ‘호국의병소년단’ 창단을 위한 기념 행사로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고장의 산인 남산 오르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제일 처음 의병탑에 참배하고 객재우장군과 그 휘하 17명의 장수 위패를 모셔놓은 충익사를 참배한 후 학년별 수준에 따라 코스를 달리하여 남산을 종주하였다. 우리 고장의 호국 유적지 견학과 산을 오르는 기회를 통하여 조상들의 호국 정신을 본받고 극기정신을 기르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향토애를 기르고 나아가 의령 얼을 계승하고자 실시하였다.

01



02



03



01 충익사 참배 모습

02 산 오르기 모습

03 1,2학년 목적지 체력단련장

3) 전국 의병 마라톤 대회 참가

의병의 날 기념 전국 의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인내심을 기르며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나라사랑 의병정신을 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4) 의령 얼 알기 수련활동

의령군 소재 홍의수련원에서 관내 5학년을 대상으로 5월 25일~27일(2박 3일) 동안 의령의 얼 알기 수련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며 ‘의병정신의 현대적 조명을 통한 의령의 얼 찾기’ 강의 청취와 내 고장 체험활동, 난타, 수상체험, 친교활동을 실시한다.

나. 승문 정신 함양 프로그램

1) 호국 문예 응모

국가 기관 및 사회단체,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호국 문예 행사에 참여하여 승문정신을 내면화 하도록 하고 있다.

2) 의령사랑 웅변대회

의령정신 사랑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 의지를 확산시켜 민주사회 발전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키고자 6월에 의령사랑 웅변대회를 실시한다.

3) 의령사랑 나라사랑 현장체험 학습

4월 17일(화) ‘호국의병소년단’을 포함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의령의 얼이 담겨있는 체험학습 장소 6곳을 선정하여 의령투어를 실시하였다. 의령군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군청 소속 문화관광 해설사 4명을 초청하여 의령의 인물과 문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학년별 이동 코스를 달리하여 알찬 체험학습이 되었다.

4) 홍의장군, 북두드림(Book Do Dream)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위인들의 의병정신을 본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의장군, 북두드림(Book Do Dream)(의병사랑 독서골든벨) 행사를 실시한다.

5) 향교체험

유형문화재 제201호로 지정된 의령향교의 체험활동을 통해 옛날 수많은 인재 양성기관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며, 전통 예절교육과 학문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04



05



06



- 04 34학년 목적지 남산 정상
- 05 문화관광해설가 설명 듣기
- 06 광재 우장군 승전지 정압진 전투

다. 예도 정신 함양 프로그램

1) 이달의 의령 인물 탐구

예도와 관련된 의령을 빛낸 ‘이달의 인물’을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탐구, 조사과제를 제시하여 의령 인물 탐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 제2회 ‘의병의 날’ 행사 체험

‘의병의 날’ 국가기념식 참석 및 큰줄다리기 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에 참여하여 의병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18장군 의병출정 재현	장군복 입기	호국 추모제례
북놀이 시가행진	의병장 말 타기	문화행사
궁도 시연 행렬	뗏목타기	호국의병퀴즈대회

3) 세계 청소년 호국의병 문화 페스티벌

세계 청소년 호국의병 문화 페스티벌 참가를 통해 의령어린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4) 이웃사랑 참 봉사활동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의령복지마을의 청소년 단체 봉사활동을 ‘호국의병 소년단’ 봉사활동으로 확대하여 의령복지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태도와 봉사과 나눔의 마음을 가지도록 한다.

3. 기대되는 성과

학교의 교육이 지역화될 경우 더욱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될 것이고 교육적 효과 또한 클 것이다.

학교와 지역,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참여하는 ‘호국의병 소년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내 고장 의령에 대한 자긍심, 애郷심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의령의 인물과 문화 유적지 탐구 및 체험학습을 통해 의령의 3월인 충의, 숭문, 예도 정신을 이어받게 되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긍지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주역으로 자라날 것이다.

07



08



07 최초 의병을 일으킬때
복을 매단 현고수

08 아름다운 자연 봉황대

‘YES프로그램’으로 운동능력 신장 및 바른인성을 함양하는 용산초등학교



김 해 영

김해 용산초등학교 교장

1. 들어가며

1937년 5월 27일 개교한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용산초등학교는 현재 1,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가 깊은 학교이다.

학교를 포근히 감싸고 있는 금동산과 학교 앞에 널따라니 펼쳐진 여차들판의 풍요로움 속에서 학생들은 마음껏 뛰어놀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본교는 2012년 4월 현재 전교생이 120여명이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내지역에서 임대버스로 통학하고 있어 언제든지 학생 수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학교로 학생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교는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영어 체험학습장,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체육시설, 다른 학교와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 특색교육으로 꿈이 있는 학교, 꿈을 만들어 주는 학교가 되기 위한 학교특색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학교특색교육으로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

가. 외국인과 말하기 자신있어요!

본교에서는 특색교육활동으로 영어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영어 몰입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영어사용 환경에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영어에 대한 친근감과 자연스러운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유공간에 ‘영어도서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화장실에서는 들어서는 순간 영어 대화가 흘러나와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도록 하였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 수업시간을 확대하여 주당 3시간의 영어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원어민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외국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산영어』를 제작하여 기본 단어 800개와 문장 200개를 수록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졸업할 때까지 익히도록 하였으며 용산영어 급수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성취목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과 놀이를 통해 기초 중국어 회화 능력을 기르고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중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말하기와 듣기 중심의 중국어 수업을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나. YES 프로그램으로 운동능력 신장 및 바른 인성 함양

본교에서는 인성과 선의지에 바탕을 둔 공동체 의식과 바른생활을 어려서부터 몸에 배도록 습관화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닌 조화로운 민주시민을 기르며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아동들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인내와 끈기를 배우게 하며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교에서는 YES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래하는 학교, 운동하는 학교, 책읽는 학교를 실천하고자 하며 운동능력의 신장과 함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다.

1) YES(Yongsan Enjoy Songs) : 즐겁게 노래하는 용산

음악을 통하여 학생들의 조화로운 정서를 함양하고 음악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소질 및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년별·학급별 특성 및 교육과정에 맞는 여러 장르의 노래를 선정하여 아침활동, 쉬는 시간,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학년별·학급별 동요부르기 대회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하루종일 노래와 음악이 넘치는 학교로 만들고자 하였다.

노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음악과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국악강사를 활용하여 우리가락과 국악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음악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학년별·학급별로 테마가 있는 동요를 선정하여 독창, 중창, 합창을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서동요, 창작동요, 건전가요, 국악동요 등을 고루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YES 숲속산길오르기를 하기 전에 음악에 맞추어 신나게 준비운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산길을 오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 펼쳐지는 YES 들관달리기를 할 때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돌 때 이달에 배워야 할 동요를 계속 들려줌으로써 운동을 하면서 노래도 익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리고 학급별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쉬는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별로 연습을 하여 학기별 동요부르기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 YES(Yongsan Enjoy Sports) : 신나게 운동하는 용산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기초체력을 기르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를 육성하여 심신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중간체력단련시간, 교과 및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YES숲속산길 오르기, YES들판달리기 및 골프를 통한 학교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고 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네그골프 수업을 전학년 주1회 실시하여 고급스포츠가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인식하에 스네그골프를 통하여 전신운동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기본체력 향상시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 체력단련시간(1~3학년 7바퀴, 4~6학년 10바퀴)을 활용한 YES들판달리기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기말에는 YES들판달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성취동기를 강화하여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달리기를 하는 동안 매달 주제에 맞는 노래를 선정하여 이달의 노래를 들려주어 노래도 익히고 체력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주 월, 화, 목, 금 2교시 후 실시되는 체력단련시간을 활용한 YES숲속산길오르기는 1코스에서 10코스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체력에 맞게 산길을 오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학기별 1회 YES숲속산길오르기 대회를 실시하여 성취동기를 강화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가족등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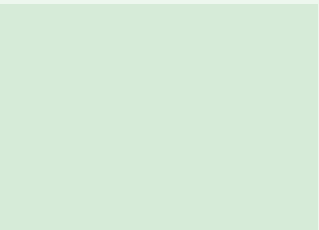
숲속산길오르기를 하는 동안에 영어단어와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숲길을 올라가는 코스 중간중간에 영어 회화 카드를 두어 산길을 오르면서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YES(Yongsan Enjoy Storytelling&book talk) : 재미있게 책읽는 용산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 즐겁게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정서 순화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른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성취목표 기록장을 활용한 학년별 권장도서 읽기를 통하여 독서 후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름다운 동행 YES 아침독서 20분(8시 40분~9시00분) 시간을 활용하여 책 읽어 주는 선생님, 독서 토론 및 스토리텔링활동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주민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기틀을 만들며 'YES가족독서활동'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가족 독후활동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자연과 하나되기

본교에는 10여 곳의 자연체험학습장을 학교 뒷동산에 꾸며 학생들이 자연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학습장을 마련해두었다.

1) 자연을 배우는 텃밭가꾸기

- 슬생, 과학, 실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1인 1텃밭 가꾸기를 통한 생명과 땀의 소중함 체험
- 재배식물의 성장 관찰 (고추, 배추, 상추, 오이, 호박, 방울토마토 등)

2) 동물, 식물과 함께하는 생태연못장

- 야외학습, 수생식물 및 어류관찰
- 분수시설, 물레방아, 야외학습 정자 시설 활용
- 부레옥잠, 물방개, 금붕어, 소금쟁이, 미꾸라지 등

3) 자연을 느끼는 체험학습장

- 전체학습장 1곳, 모둠학습장 6곳 조성
- 자연체험교육 및 토론학습, 야외학습 전개
-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야외 SMART수업

이렇듯 본교는 YES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본체력을 향상시키고 바른 인성을 기르며, 자연을 배우고 노래하는 밝고 고운 어린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학교교육의 요람으로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꿈을 만들어주는 학교가 되고자 한다.



묵향 속에 피어나는 예절교육



선 정 숙

함안 산인초등학교 교사

1. 묵향의 예절을 기대하며

요즘 첨단 미디어의 홍수와 나날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영상물들의 범람 속에서 점차 잃어가는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정서와 인성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걱정하고들 있다.

산인초등학교는 농촌 소규모학교라 도시학교와 비교했을 때 심각한 문제성을 지닌 학생은 적은 편이지만 저소득층, 편부·편모, 다문화 가정이 많아 자존감이 떨어지며 가정에서 예절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서예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창의적인 예술 감각 및 소질을 길러주며, 사자소학을 배우고 익혀 조상들의 예절교육을 습득·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주 2회 서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묵향의 예절이 주는 행복감

주 2회(월, 수) 방과후활동으로 실시하는 서예교육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반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지도 경력이 우수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리교사와 함께 지도하고 있다.

2층 교실 1칸을 서예실로 꾸며 학생들이 정돈되고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자 개인별 서예용구를 준비해 주어 기능 습득의 효과를 높여주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서예교육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

수업 시작과 함께 우렁차게 들려오는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공수인사와 족용필중, 수용필공, 묵용필단, 구용필지 등 사자소학을 들으면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잡고 정신을 집중하여 획을 긋는 1, 2학년들을 바라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예절을 말로써 가르치지 않아도 몸으로 익혀감을 알 수 있었으며 묵향과 함께 하는 사자소화 속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친구간의 우정, 스승 섬기기, 바람직한 대인관계 등 올바른 마음가짐을 배우고 있는 것이 인성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익힌 바른 예절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여 효행통장에 기록하고 보상해줌으로써 예절교육의 내면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한 서예지도로 실력이 크게 향상되어 함안군민 휘호대회, 경남학생 서예대전, 전국 학생 서예 작품 공모전에 응모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서예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예절지도로 우리 학생들은 타고 학생에 비해 욕설이나 거친 말, 왕따, 친구들과의 다툼이 거의 없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인사할 때도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공수 인사를 잘 실천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인성교육 뿐 아니라 연중돌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인근 읍지역에서 전학을 많이 오고 있어 농촌학교이지만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묵향의 예절이 주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서예대회 입상 실적〉

내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함안군민휘호쓰기대회		우수1명, 특선4명, 입선38명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18명, 입선36명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2명
경남학생서예대전		우수1명, 특선4명, 입선21명	최우수1명, 특선7명, 입선19명	최우수1명, 특선13명, 입선26명
전국학생서예작품 공모전		은상1명, 특선5명, 동상8명, 입선19명	금상1명, 은상2명, 특선8명, 입선12명	금상1명, 은상2명, 특선8명, 입선21명



3. 심정필정(心正筆正)

심정필정(心正筆正), 마음이 바르면 글씨도 바르다는 말이다.

차분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붓글씨를 쓴다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좋으며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바른 인성과 더불어 여러 서예대회에서 입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며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묵향 속에 피어나는 예절교육을 통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배려하며 함께하는 바람직한 미래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도 온 교정에 은은히 퍼져가는 묵향과 함께 산인예동이들은 비상을 위한 꿈의 나래를 펴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인성 쑥쑥!!



노 정 우

함양 유림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본교는 1932년에 개교한 학교로 75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이나 함양읍과 2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군의 아래쪽 가장자리로 인근 산청군과 경계선상에 위치해 있다. 또, 인근 지역과 연결되는 지방도가 있기는 하나 불편한 도로사정과 산업, 행정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된 곳으로 함양군 11개 읍·중 가장 면세가 약하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지역적 낙후도가 심각한 곳이다. 주변에 농공단지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산물 중심의 생산 활동으로 지역 발전이 늦고, 농촌 인구의 급감으로 인하여 학생수 27명으로 6학급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농촌학교로 전교생 27명 중 약 40%가 다문화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이며 대부분의 학생이 기초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나면 서로 어울려 놀 친구도 없고, 학습을 지도해 줄 여건도 안되는 실정에서 TV와 컴퓨터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점점 혼자가 되어 가며 자신감과 자존감, 표현력, 상상력 및 창의력이 부족해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아동들의 학습 및 생활습관을 일정부분 책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며 이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동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창의력과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2.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본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및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방과후 학교,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순	활동명	학년	비고	순	활동명	학년	비고
1	연극만들기	4~6	예술강사지원사업	5	1인 1악기	1~6	창의적 체험활동
2	연극놀이	1~3	예술강사지원사업	6	미술(수채화)	1~6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3	사물놀이	3~6	방과후학교	7	문화체험학습	1~6	창의적 체험활동
4	국악	1~6	예술강사지원사업				

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1) 다양한 문화체험 학습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본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0여 차례의 문화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교육·문화적으로 소외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시절의 아름다운 추억 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교육적·문화적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문화체험 학습을 통해 다양한 사고방식을 체험하고, 자신의 생각과 시각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가꾸는 정신을 어릴 때부터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에 쉽게 접근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문화체험 학습 내용〉

일시	제목	장소
4.16	최치원 산책로 트레킹	최치원산책로
5.04	산립항공관리소 견학	산립항공관리소
5.18~19	도시문화체험 현장학습	서울 일원
5.26	'숲' 체험학습	종합실
6.06	해양이미지 개척훈련 참가	진주일원
6.09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
6.24	매실차 담그기 체험학습	급식소
7.13~15	여름 해양캠프 참가	신수도 일원
7.18	목공예 체험(산립조합)	종합실
10.15	내고장 산오르기	오도봉
12.09	우리문화체험 현장학습	다송헌
12.20~21	2011. 겨울 스키캠프 참가	무주



2)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오래전부터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서구 여러 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들이 증명되고 있다고 한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아이들은 삶의 당면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고, 자신감이 높아져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다 넓고 깊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적이며 삶을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본교의 아동들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했고, 연극공연, 음악공연, 사진전시회, 영화관람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 관람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을 문화적으로 바라보고 향유할 수 있는 감수성을 일깨웠으며, 전인적 발달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공연 관람 내용〉

일시	제목	장소
6.23	경남 국악관현악단 '휴' 공연 관람	평안실버타운
6.27	'강아지똥' 연극 관람	함양학생공연장
7.04	오지 사진작가 초청 사진전 관람	유림초등학교
7.06	'대장만세' 막손 연극 관람	함양학생공연장
8.02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 관람	롯데시네마
9.19	오지 사진작가 초청 사진전 관람	유림초등학교
11.03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관람	함양학생공연장



3)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참가

어린이들은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워나가게 되며, 또래들과 함께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고, 자신감이 높아져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다 넓고 깊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적이며 삶을 즐길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연극,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에 참가한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자신감뿐 아니라 자존감, 창의성, 인성, 유머, 삶에 대한 긍정성, 인내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문화예술 공연 참가 내용〉

일시	제목	장소
9.02	유림경로대학 사물놀이 초청공연	유림교회
9.24	불레랑아골 풍물경연대회 참가	상림
10.27	평안실버타운 봉사활동	평안실버타운
11.06	제15회 경남어린이연극페스티벌 참가	함양학생공연장
11.22	함양교육성과발표회 풍물 참가	함양여중목련관
12.17	거창 겨울연극제 공연 참가	거창연극학교



3. 맺으며

본교는 올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구체적 경험 및 사회적 지식, 문화·예술적 경험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삶의 경험이 되었다. 가정 환경상, 지역적 특성상 학교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부족한 경험 부족의 문제를 보완해 주었으며, 자존감 및 자신감, 창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내덕뉴스’와 함께 소통 UP!



이 맹 우

김해 내덕중학교 교장



2012 입학식



1. 소통의 시작

타인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교사회도 차별, 따돌림, 학교폭력 등으로 얼룩지고 가슴 아픈 상처에 몸살을 앓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학교 환경은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 및 성장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교사의 긍정적인 태도, 원만한 교우관계가 형성된다면 학생 스스로 자아정체감을 기르는 것은 물론 학업 성취도도 향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성의 형성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내덕중학교는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학교 안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정작 학생간의 소통, 학생과 교사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진단하고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내덕뉴스’를 제작·방영하여 또 다른 소통의 장(場)을 마련하고 있다.

2. 소통의 장(場)에서 우리 만나다

‘내덕뉴스’는 학교의 행사, 각 학년의 소식, 동아리 소개, 학교내·외의 훈훈한 이야기, 장기를 지닌 학생 소개와 각종 행사 후 소감 및 평가, 서로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각 학년 및 각 반의 기자, 전교학생회장단이 좋은 뉴스거리를 찾아 취재를 하고 그것을 기사로 작성한다.

인터뷰가 필요하거나 설문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기획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하고 각 학년의 학생에서 교사들까지 참여해 기사로 들어온 내용을 심사하여 중요하고 좋은 내용을 선정하여 편집에 나선다.

내덕인들이 바람직하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행동이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으면 많은 학생의 찬·반 인터뷰와 함께 기획으로 꾸며 뉴스로 내보낸다. 이러한 뉴스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소그룹별로 열띤 토론을 거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

생들 스스로 바람직한 자아의 모습을 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교사와 학생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가는 데 도움을 주는 좋은 장(場)이 되기도 한다.

편집을 마치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아침에 내덕중 교가 영상을 오프닝(opening)으로 각 반 TV화면 속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내덕뉴스’를 접하게 된다.

내덕중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된 자신들만의 뉴스를 보며 학생 간, 교사 간,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의 장에서 화합하고 공감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다.

초기에는 방송부 담당 조성찬 선생님의 지도 아래 SONY HVR-V1을 구입하여 촬영하고 프리미어 Pro 2.0으로 영상편집과정을 거쳐 제작이 이루어졌으나 여러 차례 시행착오 끝에 몇 회의 ‘내덕뉴스’가 만들어 지면서 점차 학생들 스스로 제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덕뉴스’ 이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가 및 축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행사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교육기부 및 2011 교육박람회 홍보영상에도 출연하는 등 기량을 다방면에서 발휘하게 되었다. 방송된 ‘내덕뉴스’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학교 밖에서도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며,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한 학부모에게도 폭넓은 호응을 얻어 소통의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그래서 내덕중학교 학생들에게 시청률이 제일 높은 방송은 단연 내덕방송국의 ‘내덕뉴스’로 학생들은 언제나 다음 방송시간을 기다린다.

이렇게 내덕중학교 학생들과 교사는 ‘내덕뉴스’를 통해 애교심과 공동체의식을 갖게 되고 행복해 하며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며 공감대를 넓혀 나가면서 더 다양하고 나은 소식을 담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이벤트 기능



최재용

한국소설미디어교육원 원장

1. 들어가며

페이스북에서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이벤트 기능은 기본적인 자신의 프로필 차원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 카페와 같은 기능인 그룹 내에서 그룹 회원들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페이지 차원에서의 팬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다.

2. 이벤트 기능의 활용

가.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올리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친구들의 페이스북 창 오른쪽에 이벤트들이 보여진다.



나, 이벤트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 아래 이벤트라는 메뉴를 클릭했을때에도 볼 수 있으며, 나와 관련되어진 친구, 그룹, 페이지 등에서 올라온 이벤트들의 숫자가 이벤트라는 글자 옆에 나타나 클릭하게 되며 다 볼 수 있게 되어져있다.



다, 이벤트 만들기는 어렵지 않게 이벤트 만들기를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다 써서 넣으면 쉽게 만들어진다.



라, 이벤트를 만들고나서 이벤트 행사에 초대할 사람들을 선택할수도 있는데, 프로필에서의 이벤트와 그룹에서의 이벤트, 페이지 상태에서의 이벤트에서의 초대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1) 프로필에서의 이벤트

이벤트 초대 기준이 나와 친구 관계인 사람들에게 이벤트를 알려주는 것이다.



2) 그룹에서의 이벤트

그룹회원인 사람들에게만 이벤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3) 페이지에서의 이벤트

A screenshot of the Facebook event creation interface. The header shows the Facebook logo, user avatars, and a search bar. The main heading is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 이벤트 만들기' (Korea Social Media Promotion Center > Create Event). On the left, there's a calendar icon with the number '31' and a link '+ 이벤트 사진 추가' (+ Add Event Photo). The main form area includes fields for '시간' (Time) set to '10/4/2011' at '오후 10:30' (10:30 PM), a '종료 시간 추가하기' (Add End Time) link, a text field for '어떤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나요?' (What event are you planning?), a '주소' (Address) field, a '주소 입력' (Enter Address) link, a '추가 정보가 있나요?' (Do you have additional information?) field, a '손님 명단' (Guest List) section with a '손님 선택하기' (Select Guest) button, and two checkboxes: '이벤트 페이지에 손님 명단 공개' (Public guest list on event page) and '권리자 외 다른 회원들도 담벼락에 글쓰기 가능' (Allow other members to post on the wall). At the bottom is a large '이벤트 만들기' (Create Event) button.

기본적으로 페이지 팬들에게 보여지게 되며, 이벤트에 대해 추가적 글쓰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페이지를 잘 활용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페이스북 페이지가 홈페이지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홈페이지 처럼 일방적 정보 제공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나오며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특징 중의 하나가 실시간적 신속성이다. 이 말은 신속하게 주고 받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페이지의 팬들이 페이지에 올린 글을 보고 반응을 보인다면, 늦지 않게 반응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이든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든 가입자들은 빠르게 반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알림을 통해 자신이 올린 글들에 반응들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페이지는 만들기는 쉽지만, 운영에 있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반응에 늦지 말것과 처음 페이지 팬들의 반응이 적다고 해서 실망하고 페이지를 닫지 말아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쌓이고 쌓여서 성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6개월간 매일 꾸준히 하나나 두 개의 글을 올려 놓아야 하고, 팬이 올린 글에 대해 정성껏 반응을 보여주는 태도를 유지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미네르바를 닮아가며

진주시 이현동 진주여자중학교에 근무하시는 민순달 교감선생님께
밀양시 내이동 밀성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제자 김혜영이 이 글을 드립니다.



김 혜 영

밀양 밀성초등학교 교사

1989년 5월 15일, 정확히 23년 전 그날 아침도 우리는 일찍 학교를 갔다. 학교 뒷담 비탈에 선 아카시아 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가시에 팔이 굽혀 피가 나면서도 하얀 아카시아 꽃을 가득 따서 상자에 모았다. 교실 앞문 위의 창문에 걸쳐진 라면상자에 분명 허연 밀가루가 들어 있을거라 생각하시고도 기꺼이 뒤집어 써 주시고는 이내 아카시아 꽃송이인걸 아시고 밝게 웃으셨던 선생님, 풍선을 터뜨리고 저희 얼굴을 제각기 그려넣은 삶은 달걀 17개를 받아들면서 선생님께서는 ‘오늘이 그날이구나’ 했다. 교실 하나가 꽃향기로 가득 찼던 날, 교실이 하얗게 되었던 바로 그날은 나의 중학교 마지막 스승의 날이었다.

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 선생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편지를 써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난 한 통의 서신도 띄우지 못했다. 통영 비진도 섬마을 분교에 근무하면서 인간극장이라는 방송프로그램을 찍을 때도 혹시 선생님께서 방송을 보시지는 않았을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 다시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아 이사 오기까지 딸 둘에 아들 셋을 낳아 키우면서 엄청 바쁘고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아니 그건 핑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목숨을 구해줘도 은혜를 갚기는 커녕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리라.

내가 그녀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녀의 인상이 강렬하지 않다거나 그녀가 특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춘기 여학생의 관심은 같은 여자에게는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거슬러 생각해 보건데 내 기억에 그녀와의 첫 만남에 대한 필름은 무(無)다.

경남 하동군 북천면 골짜기에 지금은 분교가 되어버린 작은 시골 중학교의 미네르바 선생님. 3월 교실 뒤편 환경정리를 할 때 꿈을 적어 걸어 두는 나무에 선생님의 사과도 크게 하나 달아두셨는데 그 곳에 선생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말로 ‘미네르바’라는 글자를 적어 두셨다. 지혜의 여신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 다음에 지혜롭게 사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걸음걸이가 유난히 당당하셨던 우리들의 아줌마 선생님, 그녀는 내게 있어 그림 그 이상이였다.

그 해 이른 여름, 선생님은 복도로 날 불러내어 곧두박질치고 있는 나의 성적을 탓하며 왜 자꾸 그러느냐고 물으셨지만 공부를 할 이유가 없었기에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그때의 나의 소원은 고등학교를 가보는 것이었는데 같은 시기를 지나온 나의 동기들은 나와 같은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다. 60년대를 방불케 하던 우리집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돌아서서 교실로 들어가는 나의 뒷모습이 선생님을 더욱 서운하게 했을 것이다. 우리 집은 아홉식구 대가족이었고 위로 오빠와 언니,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 나를 합쳐 오남매를 키우시는 아버지의 살림은 천수답 벼농사 여섯마지기가 전부였다. 우리 형제들은 용돈을 받아보는 일이 없어 동기들이 다들 물고 가는 아이스크림 하나조차도 보조를 맞추어 사먹지를 못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늘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언니의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이 있었다. 어느 날은 함께 자면 심장 뛰는 소리가 내 심장소리보다 크게 들리다가도 어떤 날은 숨소리도 나지 않을 만큼 조용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죽어버렸나 해서 흔들어 깨워보기도 했다. 그런 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서 언니를 막 입원시킨 게 그 해였다. 거기다 할아버지까지 방광 이상으로 입원을 하고 있어서 엄마는 언니가 있는 부산대학병원과 할아버지가 입원한 진주 경상대학병원으로 정신 없이 다니고 있던 때였다.

아버지는 날 불러 앉히고 “혜영아, 아버지가 널 고등학교를 못시켜 주겠다.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랑 진주로 가면 자취하는 방도 하나 얻어야 되고....” 그 말을 들으며 도리어 내가 무안해서 먼저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는 나의 진로는 결정되어 버렸다. 아버지를 더이상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에 다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여름을 땀과 싸워가며 열심히 공부할 때 난 별다른 할 일이 없이 멍하니 운동장만 보고 있던 때였다. 아예 공부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으니까.

2학기가 되었다. 원서를 쓰기 위해 친구들은 부산했고 그달 모의고사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형편없는 성적이 나오고 말았다. 문제도 어려웠던지 다른 아이들의 성적도 많이 떨어졌었다. 그날 오후 미네르바 선생님은 우리 반 모두 성적이 떨어졌다며 화가 잔뜩 나신 채로 옆 반 수학선생님의 대나무 뿌리 회초리를 들고 손에는 하얀 장갑까지 끼고 교실에 들어오셨다. “혜영이부터 나와서 맞아라.” 대답하게 나가서 손바닥을 찢고 그날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속으로 세다가 개수를 잊어버릴 만큼 맞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도 맞고 울기도 했지만 난 그게 아프게라도 느껴졌으면 했다. 내 신세가 한스럽고 그렇게라도 원망을 털어보고 싶었다. 방과후 선생님은 나를 따로 교무실로 불러 그렇게 말씀하셨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고, 지금은 집안 형편이 그런지 몰라도 1년만 지나도 사람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하시며 배우는 일은 절대로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선생님은 내가 모르게 집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부모님을 설득 하셨다고 했다. 결국 부모님은 내가 시험을 치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으셨다. 선생님께서 증명사진 값을 주셨고 미리 원서도 챙겨 주신 것까지 기억이 난다.

시험을 치러 가는 날.

우리는 하루 전날 진주에 도착해서 예비소집에 갔다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사립을 나서는 나를 보고 아버지는 “답답하게 해라. 부담가지지 말고.....” 엄마는 “그냥 떨어지고 왔으면 좋겠구만. 휴~”

세상에 시험 치러 가는 딸에게 어느 부모가 그런 말들을 던지겠나만은 당신들의 심정도 오죽하셨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합격을 했는데도 공부를 시킬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이젠 내가 부모가 되고 나니 역시 십분지 일만큼일지라도 이해가 된다. 미네르바 선생님은 그런 나를 데리고 진주로 가는 기차에 같이 오르셨다. 그날 밤 긴장으로 자꾸만 배탈이 나는 친구들의 소화제를 사 나르느라 시간을 통째로 허비했지만 그래도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건 내겐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행운이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난 운이 좋았다. 시험을 치고 연합고사라 학교를 추천할 때 우리선생님이 다녔던 역사와 전통이 깊어 시골 어른들에게 좋은 선입관을 지닌 진주여고로 배정을 받았고 덕분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어 입학도 할 수 있었다. 선생님의 말씀은 적중했다. 돈이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었다. 풍족하게 가정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언니의 수술비가 다른 독지가의 도움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지는 않아도 되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있다. 똑같은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난 확신을 가지고 그때 미네르바 선생님께서 나에게 보이셨던 행동을 보여 줄 것이다. 단 하나의 아이에게서도 그 가능성을 얕게 보지 않으리라는 지금의 내 교직관은 미네르바 선생님의 뜻깊은 행동으로부터 배운 것이라 하겠다.

교대를 졸업하고 제일 먼저 임용고사 합격을 알린 곳도 부모님이 아니라 미네르바 선생님이었다. 이제는 사회인이 된다는 것도 기뻐고 선생님과 같은 교사가 된다는 것도 내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첫 발령을 받고 떠나오기 전 선생님은 내게 장총을 든 닭 모양의 탁상시계를 선물로 주셨다.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라고 적힌 편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다.

내 선생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은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에게 선생님은 내 인생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결정을 내려 주신 분이다.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해주신 나의 미네르바 선생님. 그래서 그녀는 내게 그리움 그 이상인 것이다.



보물섬 남해의 보물 유치원



정 주 희

남해유치원 학부모

망운산 소나무들이 일제히 가지개를 켜고 이름 모를 야생화 꽃들이 우리집 정원에서 잠을 깬 즈음 도경이의 하루일과도 유치원 등교로 시작됩니다.

“엄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엄매!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엄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도경이의 꿈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있으며, 그 작은 입으로 어눌하게 자신의 꿈을 말하는 도경이의 변화를 보면서 유치원 교사의 큰 사랑에 감사를 보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막막했던 지난 해가 생각납니다. 교육료가 비싸면 좋은 유치원인줄 알았고, 어린이집 프로그램이 내 아이에게 더 맞다고 생각하여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부적응의 이유로 몇 달 다니지 못하고 올해 남해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서자 저의 눈을 사로잡은 아름답고 넓은 야생화 정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실내 환경, 원아 연령별에 맞게 구비되어 있는 자료,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자한 원장선생님,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 보물섬 남해에 이런 보물 유치원이 있었다니! 우리 아이가 선택받았고 축복받았다는 들뜬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도경이는 사흘이 멀다하고 병원에 드나드는 약골로 태어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로 인해 열이 펄펄나서 엄마의 애간장을 태우는 가슴 아픈 자식입니다. 그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놀라움 정도로 뺨이 ‘토실토실’ 키가 ‘쑥쑥’ 그 이유가 뭘까? 곰곰 생각해 보니, 남해유치원에서 실천하는 생태체험활동, 산책활동, 적절히 안배한 실외놀이 및 실내놀이,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활동, 추가비용 없는 특성화 교육, 그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균형 잡힌 알찬 급식과 우유간식에 곁들여 퍽퍽! 씹어 먹는 남해산 죽방멸치와 검은콩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유치원이란? 교육료가 비싸고 외관이 화려한 유치원이 아니고, 아이들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전문성 갖춘 선생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원의 식물도 돌을 골라내고 흙을 부드럽게 일구어 물, 햇빛, 자양분을 알맞게 주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저마다의 향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 도경이의 꽃밭인 남해유치원이 있고, 꽃밭의 정원사인 전문 교사가 있기에 도경이의 꿈은 짙은 향기를 내며 아름답게 피어 날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쁜 시간 쪼개어 남해유치원으로 향합니다.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연수에 참석하여 내 아이의 올바른 성장 발달을 돕고,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자질을 키우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 남산의 야생화는 낮게 앉아 활짝 웃고 있었고, 유치원 정원의 연분홍 진달래는 남해유치원을 상징하는 듯 찬란히 피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욕심 없는 삶을 꿈꾸며



이 재 훈

창원고등학교 2학년 2반

‘오래된 미래’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이자 세계적인 여성 생태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1975년에 언어 연구를 위해 인도 잠무카슈미르주의 히말라야산맥 북서단부와 라다크 산맥 사이에 있는 라다크 지역을 방문하여 16년간 지내며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다.

‘라 다그스’라는 티베트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산길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라다크’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티베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 ‘리틀 티베트’라고도 불린다.

라다크 사람들은 개인이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밭의 면적을 쟀 때에도 하루 치, 이틀 치 같은 단위를 사용한다. 라다크 사람들은 술을 만들고 난 보리찌꺼기들은 잘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다시 먹을 수 있게 만들며, 설거지하고 남은 물에도 적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남아 동물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지나치게 알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 하나까지 아껴 쓰고 다시 쓰면서 살지 않았다면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우리들과는 달리 라다크 사람들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그들의 시간에 대한 여유로움을 알 수 있다. 공그로트는 ‘어두워진 다음부터 자기 전까지’라는 뜻이고, 나이체는 ‘해가 산꼭대기에 있는 한낮’을 말하며 치페치릿은 ‘해가 뜨기 전 새들이 지저귀는 이른 아침’을 뜻한다.

라다크에는 100가구가 넘는 마을이 거의 없어서 라다크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조와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또한 경제적·정치적 거래가 이루어 질 때에도 서로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속임수나 권력남용 같은 것이 없다.

외부와 동떨어져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든 라다크 사람들도 1984년부터 급격하게 서구의 문명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은 라다크에 와서 매일 100달러를 썼고 그것은 라다크의 한 가구가 일 년간 쓰는 돈과 같았다. 그러한 외국인들을 보게 되

면서 언제나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다’라는 뜻의 ‘통보스 자보스’라고 말하던 라다크 사람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가난하다고 느꼈다. 그 결과 라다크는 오염되어 가고 사람들도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같은 ‘문명의 병’에 걸리기 시작하였다. 농부들과 여자들의 지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락하였고 남자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가정과 공동체의 붕괴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다.

나는 이러한 서구의 문명이 천년 넘게 잘 살아온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이렇게 단기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새삼 세계화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한 사회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가치를 GNP로만 판단한다는 것은 크나큰 오류임을 깨닫게 되었다. 라다크 사람들은 결코 돈이 많거나 부유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 만족을 하며 자연이 자신들에게 준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며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왔다. 그러므로 나는 부탄의 한 국왕이 말했듯이, 한 나라의 가치와 복지는 GNP보다는 국민 총 행복 지수인 GNH로써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래된 미래’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저자는 라다크의 오래된 삶인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것과 욕심 없는 삶’을 통해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위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문명의 이기란 인간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창조물이라고만 생각하였고 이러한 발달된 문명의 맹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문명의 지나친 발달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유’를 읽고



김 해 경

창원 동부초등학교 교사

이 소설은 영국의 작가 A.S.바이어트의 소설로 영화 ‘포제션’의 원작소설이기도 한 수준 높은 연애소설이다. ‘수준 높다’라고 한 이유는 이야기 안에 다양한 텍스트가 산재하고 있어 지적인 상상력이 풍성하게 흐르기 때문이다. 신화와 전설 및 정신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소설 전체에 보석 같은 시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는 미로 찾기 같은 아슬아슬한 긴장을 소설 끝까지 유지한다.

주인공들의 연애감정에 내 감정을 얹어서 소설을 읽어 나갔다. 연애에 내 감정을 싣다니, 그 풍부한 텍스트에 나를 붙들어 두지 못하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자신이 결코 한심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불혹을 넘긴 이 나이에 소설 속에 내 감정을 이입하여 꿈결 같은 연애 한 번 해 보았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한심한 일일까? 어찌되었건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가난한 학자 몰랜드가 유명한 시인 애쉬를 연구하던 어느 날, 그 시인이 남긴 편지 두 장을 찾아내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몰랜드가 애쉬의 시집 속에서 감추어 두었던 연애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흥분하던 그 흥분은 읽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그 흥분에 동참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편지글을 우연히 읽는다는 것은 참 흥미롭다. 더군다나 그것이 연애편지라면 도저히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더군다나 이 편지의 주인공은 유명했던 시인의 숨겨 두었던 편지였기에 더욱 흥미로웠을 것이다. 위대한 시인의 숨겨진 연인이 누구였을지 시인의 긴 손가락들의 펼침까지 맛보려는 주인공을 잘 그려주고 있다. 사실 수세기에 걸쳐 편지로 엮힌 이야기가 참으로 많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영원한 남편’은 아내의 연애사건을 다룬 소설인데 그 소설의 실마리 역시 아내의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편지였다. 연애편지. 얼마나 낭만적인지. 오, 편지를 주의해야 할진저!!

그러나 요즘은 이메일이나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한 소통으로 서랍이 삭막할 만큼 편지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사이버는 서로를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행시키며 절차 또한 간단하다. 내면의 무르익음 없이도 쉬이 연애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 또 클릭 한번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기도 하는 시대에 이런 연애편지는 향수 그 이상이다. 아무튼 연애는 나와 상대방의 서로를 향한 열림이며 그 열림을 연결해 주는 편지, 아니 언어가 절대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소설

속에서 발견된 편지를 다시 옮기며 읽어 본다. 이런 편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삶이 눈부실 것인가.

자, 이제 정말 대답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 제가 틀렸다 해도 그대가 저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지는 않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대의 글에 나타난 그 뛰어난 재능 속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다듬어서 보여 주는 빼어난 솜씨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는 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대 쓰십시오. 기이한 것들을 그린 그대의 이야기나 섬세한 서정시에서나 - 그대는 정확한 눈과 귀로 여러 가지 세세한 사실들을 놀라울만큼 섬세하게 묘사하였습니다. - 가령 집 안에 있는 린넨이나 섬세한 바느질의 행위, 아 이에게 우유를 먹이는 모습 - 이러한 뛰어난 묘사를 읽으면 아무리 단순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가정이라는 하나의 작은 세계가 바로 낙원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의 세계는 목소리 없는 형상들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갈 곳을 찾지 못한 정열..... 그리고 불쑥 찾아 드는 작은 두려움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박쥐나 빗자루 마녀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두려움들. 이러니까 마치 - 그대는 군주나 부인들 혹은 농부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네들의 일상을 다루는 뛰어난 능력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바람의 목소리 - 호느낌 - 사이렌의 노래 - 세월의 회랑으로 울려 퍼지는 인간의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고통의 울림, 이런 것들도 실감나게 표현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대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364)

한 남자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와 감정의 과장을 느끼게 되는 편지. 소설은 이들 두 사람의 주고받은 편지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들의 연애스토리는 혼란에 빠진 채 현재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들을 규정하던 모든 굴레들을 분쇄하고 현기증 나는 유혹에 모든 것을 던져 버리는 엑스터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죄악시하며 어둠 속에 묻어 두려고도 하지 않았다. 성숙하고 예민한 영혼들이 그 감정과 지성으로 빚어내는 아름답고도 슬픈 러브스토리이다.

그리고 책을 읽기도 전에 흥미를 끌었던 것은 이 소설의 표지 상권과 하권의 오른쪽 귀퉁이의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시대의 화가 번존스의 그림이다. 번존스라는 화가는 잠바코라는 모델과 기막힌 연애를 했던 화가였기로 내 눈이 반짝였다. 번존스가 사랑했던, 잠바코가 사랑했던 번존스의 그림이 이 소설의 표지 상단을 장식하고 있다. 편집에도 상당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소설이다.

연애에선 다들 연약했고 수줍었고 또 용감했다. 이 세상 모든 작가들의 원동력이 사랑이 아니었던가? 아니 작가들에게만 사랑이 원동력일까? 우리 모두에게 사랑만큼 원동력을 가져다주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 세상 모든 연인들이 오늘도 심장을 부여 짜면서도 그 사랑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나? 이 꽃피는 봄날이 다 가기 전에 아날로그식 연애편지 한 번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약간의 관음증을 채워주는 펄립과 함께 말이다. 다른 이들이 풀어내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저 흔들리는 척 하며 웃어 보는 봄날이다. 하하하.

작품명 : 好梅圖 62*125



梅花를 반가이 만나려거든 그대여, 눈 쌓인 江村으로 오게.
저렇게 얼음 같은 뼈대이거니 前生에는 白玉의 녀이었던가.

- 하락 -

고대 이래로 매화를 노래한 시인 묵객이 많았지만, 특히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의 매화에 찬 시는 구절구절이
가슴에 와 닿는 정서가 너무 좋아, 쌓였던 구곡간장이 시원한
느낌이 절로 난다. 매화의 모든 형상과 이미지를 살린 절품이라,
여기에 매화 한 폭을 펼쳐봅니다. 변화의 시세를 따라가는
오늘도 쉬어가는 한량을 느껴보시길.

창원 진전의 들녘에서 청계 차일수 畵



차 일 수

- 한진초등학교 교장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 강남미술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역임
- 개인전 4회
- 홈페이지 ilsoo.co.kr

이제 그만!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 학생의 징후

-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 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 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 자면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한다.
- 이유 없이 갑자기 성적이 떨어진다.
- 얼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가해 학생의 징후

-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 갑자기 돈 씹씀이가 커졌다.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 손이나 팔 등에 종종 봉대를 감고 다니거나 문신 등이 있다.

학교폭력처리 절차



학교폭력 대처 방법

피해 학생 부모의 경우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 피해사실을 축소, 은폐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 예) 문자메시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경우

- 부인하지 마세요.
•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순 없습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세요.